



# 明慧週刊



麥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62期(2025.12.01) WWW.MINGHUI.ORG

한글판 1026호 minghui.or.kr



▲ 명혜망 제22회 중국 법회가 11월 9일에 개막했습니다.

## 주요내용

- 【중국소식】 우한시 퇴직 노간부, 진상 알고 삼퇴
- 【수련교류】 확신한 길은 반드시 계속 걸어가야 한다
- 【중국법회】 대법이 나에게 준 공능과 신기한 체험
- 【중국법회】 우리의 수련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 〈목 차〉

### ■ 중국소식

우한시 퇴직 노간부, 진상 알고 삼퇴 ..... 3

### ■ 수련교류

확신한 길은 반드시 계속 걸어가야 한다 ..... 7

### ■ 중국법회

대법이 나에게 준 공능과 신기한 체험 ..... 14

우리의 수련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 23

사부님의 당부를 잊지 않다 (상) ..... 32

사부님의 당부를 잊지 않다 (하) ..... 44

정(情)의 교란을 내려놓고 더는 듣기 좋은 말에 집착하지 않다 ... 53

졸업 후 귀국해 직장애 매몰됐다가 팬데믹 후 깨닫고 분발해 뒤쫓다 ... 64

의지의 소모에서 마(魔)를 제거하기까지 ..... 77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한시 퇴직 노간부, 진상 알고 삼퇴

[명혜망](중국 대법제자 투고) 후베이성 우한에 퇴직한 노간부가 한 분 계시는데, 전직 정부 고관으로 현재 80여 세입니다. 어르신은 몸이 별로 좋지 않아 비록 고위 간부 병실에 입원해 비용이 전액 무료지만 병원에서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 우울한 상태였고, 가족들은 모두 조급해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올해 가을, 아는 수련생이 노인을 보러 가서 대법 진상과 《9평 공산당》, ‘천멸중공(天滅中共,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멸하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악당이 20여 년간 체계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한 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제 내 인물이라 중국공산당(중공)의 나뻐움을 깊이 알고 있으며, 중공은 좋은 말은 다 하면서 나쁜 짓만 골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열병식 때 악당 총서기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사람은 15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했지요. 사람이 오곡 잡곡을 먹는데 어떻게 150세까지 살 수 있나요? 이제 알겠습니다. 신체 부품을 바꿔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다 부모가 낳고 기른 것인데, 남의 장기를 바꾸면 다른 사람은 살 수 없으니, 누구도 자원해서 바꾸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겠죠. 그러니 그들은 남몰래 할 겁니다.” 그는 중공이 반드시 생체 장기적출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 부부는 시원스럽게 악당을 탈퇴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 부부는 녹음된 진상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노

인은 어젯밤 잠을 아주 잘 잤으며, 줄곧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경건하게 염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렸으며, 중국인이 모두 진상을 알고 사악한 중공 조직에서 탈퇴해, 명철보신(明哲保身)하고 중공을 위해 순장되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 세인이 “중공은 사교” 스티커를 본 반응

(중국 대법제자 투고) 어느 날, 우리 지역의 두 노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러 나갔다가 한 노교수를 만났습니다. 두 수련생이 그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이야기하자 노교수는 “난 공산당에 좋은 인상이 없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의 “중공은 사교” 스티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 다 쓰여 있지 않소!”

## 악당의 살인 역사를 말해 세인을 깨어나게 하다

(중국 대법제자 투고) 한번은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파룬궁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좀 반감을 가지며 말했습니다. “연금 안 받았어요? 그건 공산당이 주는 겁니다.” 저는 “전 10여만 위안을 내고서야 받았습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지금 생활 조건이 좋아졌는데, 공산당 없이 좋은 날을 보낼 수 있겠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금은 어르신이 노동해서 얻은 겁니다. 어르신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해 그들이 걷어 갔다가, 늙어서 연금을 주는 건데, 어르신이 낸 그 일부에 대한 이자도 안 됩니다. 공산당은 첫째 농사도 안 짓고, 둘째 일도 안 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연금을 주겠습니까? 모두 어르신이 피땀 흘려 노동해 얻은 것이며, 공산당은 도리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살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국민의 재산을 등쳐먹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공산당이 정권을 찬탈한 이래 매번 사람을 숙청하는 운동으로 수많은 좋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대약진 운동 당시 대대적으로 강철을 제련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삼반오반, 문화대혁명, 89년 6.4 학생 학살, 지금은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매번 먼저 유언비어를 날조해 먹칠하고 죄를 뒤집어씌워 세인을 속인 다음, 속은 세인을 이끌어 좋은 사람을 숙청합니다.”

“저는 또 파룬궁은 불법(佛法) 수련이며, 대법 사부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선인을 표준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지, 텔레비전에서 조작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장쩌민은 악마로 악당의 ‘거짓·악·투쟁(假惡鬭)’ 수법을 따랐으며, 그는 진선인을 두려워하고 파룬궁 배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질투심에서 권력을 이용해 탄압하고 파룬궁에 먹칠하며 세인을 속였습니다. 누가 그 유언비어를 믿으면 하늘이 악당을 멸할 때 그 순장품이 되고 맙니다. 선악에는 응보가 따르는 것이 천리(天理)이기에, 우리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상을 알려 세인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대법이 좋음을 인정하면 재난을 만나도 상서로움이 되고 흉한 일을 피하고 길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삼퇴해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입했던 당·단·대 조직을 마음속으로 탈퇴해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면 순장품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쁘게 동의했고, 실명으로 탈퇴했습니다.

이번에 진상을 알린 경험을 통해 저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악당

의 최악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현재 상대적으로 생활이 좋아진 가상에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폭로하자 노인은 곧 기억해 냈습니다. 그는 또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는데, 그 나이대 사람들은 다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파룬궁 진상을 이야기하자 그는 귀담아들었고 받아들였습니다.

제 개인의 작은 인식이며,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 확신한 길은 반드시 계속 걸어가야 한다

— 서명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

글/ 중국 랴오닝 대법제자

[명혜망] 얼마 전, 한 수련생이 ‘엄정성명’ 쓰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수련생이 제게 “제가 성명을 써야 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동시에 지난 6월 우리 지역에서 이 수련생과 함께 납치된 9명 중 한 명은 경찰에게 소란을 당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납치된 수련생의 대법서적과 사부님 법상은 전부 빼앗겼고, 풀려난 6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악에 협조하여 서명했으며, 집에서 소란을 당한 수련생은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사악이 수련인에게 감히 이런 독한 수를 쓰게 했을까요? 저 자신도 예전에 우회로를 걸었다가 나중에 바로잡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래에 제 경험과 바로잡는 과정을 써서 수련생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법(法)에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1. 어리석게 서명하다

1999년 7월 20일, 중공(중국공산당) 악당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직장의 중공 악당 부서기가 우리집에 찾아와 종이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



지도 않고 “제 성격 아시잖아요. 서명해도 저는 똑같이 연공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단 서명한 후 연공할 거면 연공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법에 있지 못했고 자만심에 빠져, 서명이 사부님을 배신하는 것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큰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서명하고는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맹장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부님께서 제 몸을 더욱 정화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련하기 전에 저는 맹장염과 여러 질병을 앓았는데, 1997년 병 때문에 대법 수련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부님께서 몸을 정화해주셔서 맹장염과 다른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체 정화와 달랐고 날이 갈수록 더 아팠습니다. 저는 이것이 병이 아니라 업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맹장에 8.4×9.5 크기의 농양이 생겼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할 수 없으며, 배를 열었다가 고름이 복강으로 퍼지면 곤란하니 우선 수액을 맞으며 염증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링거를 꽂은 채 남편에게 수액 병을 들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개를 들어보니 수액 호스 안에 공기 방울이 가득 차 있어서 남편에게 바늘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부님께서 소업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맹장의 통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허리에는 물집이 한 바퀴 띠를 두르듯 생겨 곧 ‘머리가 맞닿을(한 바퀴 돌아 만날)’ 지경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이것을 ‘뱀이 꼬리를 트는 창(대상포진)’이라 부르며, 뱀머리가 맞닿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머리가 맞닿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며, 설령 당



더라도 내부 신경과 외부 피부 손상 면적이 넓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은 사람을 죽기보다 더 괴롭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며, 심지어 장기간 신경통 후유증을 앓기도 합니다.

저는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했을까? 어쩌서 몸에 이렇게 큰 난이 나타났을까?’ 하지만 사부님에 대한 제 믿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맹장(闌尾·란웨이), 맹장”하고 중얼거리다 보니, 이 ‘웨이(尾)’가 거짓이란 뜻의 ‘웨이(僞)’와 발음이 같아 ‘거짓(불진·不眞)’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제가 바로 서명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했는데, 맹장과 허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자전거를 벽에 기대어 놓고 다리를 천천히 올린 뒤, 직장에 도착해서는 다시 자전거를 벽에 기대고 천천히 다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고, 발이 땅에 닿자마자 너무 아파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 2. 바로잡다

직장에 도착하니 마침 사장(악당 서기)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장 사무실에 들어가니 사장의 얼굴이 어두웠는데, 알고 보니 성(省) 공사(公司) 회의에 갔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우리 직장은 성 소속 기업이고 저는 사무실 주임이라, 문서 등록과 결재는 제 소관이었습니다. 중공이 대법을 박해한 후 파룬궁 박해에 관한 모든 문서를 저는 사장에게 보여주지 않고 바로 보관했습니다. 성 공사 회의에서 파룬궁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사장은 아무런 준비가 없어 곤란을 겪었습니다.

사장은 제가 문서를 묵혔다는 것을 알고 성 회의에서 돌아와 부사장 한 명에게 문서를 직접 관리하게 하고 제게는 문서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몹시 화를 내며 제게 말했습니다.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써요. 안 그러면 성에서 검열 나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사장의 남동생은 우리 현(縣)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부대장으로, 파룬궁 박해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며칠 전 부서기님이 제게 서명하게 한 그 종이,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아무것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무실 주임이 파룬궁을 연마한다는 걸 성 공사가 알게 되면 난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 해요(해고).”

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을 난처하게 하지 않을 테니, 저를 이 사무실 주임 자리에서 내려주세요.”

제 직책인 종합판공실 주임(악당 판공실, 인사 노무, 사무실 총괄)은 직장 개혁 때 과장 11명 중에서 전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였습니다. 당시 저는 박해를 반대하는 법을 몰랐기에 그 말을 하고 몸을 돌려 제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며 업무 인계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사장 보좌관이 와서 사장이 저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사장 사무실로 가니 사장의 얼굴은 이미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짐 챙겨서 인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매 같은 정을 봐서라도 당신이 보증서를 안 쓰면, 성 공사에서 사람이 와도 내가 막아줄게요.” 그리고 또 말했

습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데요. 당신이 가져온 전표는 심사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녀가 말한 전표는 회사의 접대비, 사무비, 직원 식대 등으로 모두 제 손을 거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무실 주임 자리는 부사장과도 안 바꾼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주임을 하면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고 사장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파룬궁을 연마하기 때문에 한 푼도 탐하거나 점유하지 않는 겁니다.”

저녁 퇴근길에 맹장과 허리 통증을 잊은 채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맹장의 큰 혹이 가라앉았고 허리의 물집도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념으로 ‘보증서’를 쓰지 않고 법을 실증했기에 사부님께서 업력을 제거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3. 세 가지 약속을 실천하다

저는 스스로 세 가지 약속을 정했습니다. 1) 목을 내놓을지언정 대법 책은 내놓지 않는다. 2)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사부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3)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수련생을 팔아넘기지 않는다.

2005년, 저는 사악에게 가택수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제 첫 반응은 북쪽 베란다로 가서 수련생에게 꽂아둔 신호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맞은편 건물에 사는 수련생과 함께 ‘9평 공산당(九評共產黨)’ 책을 만들고 있었는데, 수련생의 제본 도움이 필요할 때 베란다에 신호를 꽂아두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수련생이 제가 신호를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집에 오지 않아 경찰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신호를 내리자마자 경찰 두 명이 제 양팔을 각각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다른 경찰 두 명이 대법서적을 안고 사부님의 법상을 가져가려 하기에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사부님 법상에 손대지 마! 누가 감히 건드리는지 보겠어!” 저는 속으로 ‘누구든 건드리면 목숨 걸고 막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경찰은 동시에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게 책 한 권은 남겨줘요. 돌아와서 봐야 하니까요! (이것이 당시 제 경지였습니다)” 그중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한 권 남겨줘, 돌아오고 싶다잖아!” 제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경찰이 ‘전법륜(轉法輪)’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저와 남편을 납치해 간 후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때 남동생(수련생)이 달려왔고, 장식장 위에 있는 사부님 법상을 보고는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법상은 지금까지 동생 집 불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구치소로 납치된 다음 날, 정법위, ‘610’, 공안국 등에서 한 무리의 사람이 와서 저를 협박하며 다른 수련생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신 집에서 나온 그 물건들, 당신 혼자서 만들었을 리가 없어. 말 안 하면, 당신 아들도 파룬궁을 연마하잖아. 우리가 당장 베이징에 있는 당신 아들 학교로 가서 학교 측에 아들이 파룬궁을 연마한다고 알릴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바로 제적시킬 거고, 앞으로 당신 아들의 직장도 앞날은 다 끝장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은 베이징의 명문대 2학년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고, 자라면서 제가 욕 한 번 한 적 없고 손찌검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12살 때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는데 더욱 철이 들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중학교 3년 내내 기말고사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중점 고등학교의 우열반(중점반)에 합격했고, 이후 순조롭게 베이징의 명문대에 합격하여 원하는 전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사부님의 법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출생한 후, 이 집에 그가 있고, 학교에 그가 있으며, 또는 성장하여 직장 에 그가 있어, 그의 일을 통해 사회와 다방면으로 연계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전반 사회의 구성은 모두 이렇게 배치가 잘 된 것이다.”(전법륜)

저는 사부님과 법을 믿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모두 꿈 깨세요! 제 아들은 우리 사부님께서 관할하십니다. 장차 제 아들은 당신들 그 누구의 자식보다 직장을 더 잘 구할 겁니다. 지금 고용주들, 특히 외국계 기업은 모두 파룬궁 연마하는 사람을 쓰고 싶어 해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들은 아무도 대꾸하지 못하고 서로 쳐다만 보다가 무안해하며 가버렸습니다. 제 아들은 사부님의 보호하에 조금도 상처 입지 않았고, 아들의 직장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 대법이 나에게 준 공능과 신기한 체험

글/ 중국 대법제자 구술, 수련생 정리

[명혜망] 1996년 어느 날, 저는 불행히도 맹독에 감염돼 몸 상태가 갈수록 나빠졌고 밤낮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시내의 크고 작은 병원, 민간 진료소, 각종 처방을 다 시도해 봤고, 온갖 치료를 다 해보며 많은 돈을 썼지만, 체내의 맹독은 배출되지 않았고 해독제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매일 고통이 극심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 대법을 기쁘게 얻어 마른 나무에 봄이 오다

1998년 하반기 어느 날, 저는 작은 광장을 지나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듣기 좋은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줄을 맞춰 서서 눈을 감고 포륜(抱輪)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장면이 평온하고 에너지장이 매우 강했습니다. 저는 또 ‘파룬따파 무료 공법교습’이라고 쓰인 노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한 파룬궁수련생이 다가와 저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소개 전단을 주며 열정적으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전단을 진지하게 읽은 후 마음이 매우 격동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일반적인 병을 고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기공이 아니라 사람에게 덕을 중시하고 선을 행하며 반본귀진(返本歸真, 진정한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감)하게 하는 불법(佛法) 수련이며, 또한 제가 줄곧 애타

게 찾고 기다리던 고덕대법(高德大法)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명은 다시 희망을 불태웠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난 사부님을 찾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반본귀진의 금광대도(金光大道)에 들어섰습니다.

막 법을 얻었을 때 다리를 틀지 못해 끈으로 다리를 묶고 극심한 통증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돼 저는 연공 음악에 맞춰 한 시간 동안 가부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야외 단체 연공에 꾸준히 참가했는데, 비바람이 불거나 눈이 와도, 심지어 추운 겨울에 큰눈이 내려도 눈밭에서 가부좌하고 앉아 버텼습니다.

사부님께서 제 몸을 정화해주셔서 금방 무병 상태가 돼 몸이 가벼워졌고, 피부는 희면서도 불그레해졌으며,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가 흘러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제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현대 의학이나 각종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저는 돈 한 푼 안 쓰고 대법을 수련해 환골탈태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쁘게 대법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 법을 얻은 초기의 신기한 이야기

저는 여러 차례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와 공법 교육 비디오를 보았고, 또 《전법륜(轉法輪)》 등 몇 권의 대법 서적을 모셨습니다. 매일 법광(法光) 속에 목욕하며 진선인(眞·善·忍) 우주 특성에 동화했고, 고생을 낙으로 삼아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며 심성(心性)을 끊임없이 제고했습니다.



저는 인간 세상의 명리정(名利情-명예, 이익, 정)과 각종 유혹을 단번에 담담히 보게 됐고, 수련은 이미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됐습니다. 시간만 나면 저는 법공부를 하고 연공했습니다. 제가 법을 늦게 얻었기에 사부님께서는 자비롭게 저에게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연공한 첫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 집 방문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제 가족의 몸에 한 층의 채색 광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이튿날 연공장에 가니 노수련생이 사부님께서 제 천목(天目)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이마 부위에 황금색의 큰 눈이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매우 크고 예뻐으며 색깔은 인간 세상의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 큰 눈도 저를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라졌습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수련에 정진할 때 파륜(法輪)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잘 때, 저는 갑자기 한 차례 강렬한 에너지가 멀리서부터 와서 정수리에서 전신으로 관통하는 것을 느꼈는데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깨어나 눈을 뜨니 강력한 에너지 아래 제 몸을 덮은 이불이 떠올라 허공에 걸려 있었고, 똑바로 누운 제 몸도 침대 바닥에서 서서히 떠올라 잠시 허공에 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제게 관정(灌頂)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했고 마음속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은 제 몸에서 몇 번 일어났습니다.

## 수련을 겪으면서도 금강처럼 움직이지 않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은 파룬따파를 광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억 명에 달하는 수련인의 정신(正信)이

탄압받았고,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 중독됐으며, 많은 사람이 진상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부처님을 비방하고 불법(佛法)을 비방하는 끝없는 죄업을 저질렀습니다. 이 갑작스럽고 거대한 법난(法難)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양심을 시험하고 가늠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비할 바 없이 소중한 우주 대법을 세상에 전해주셨고, 대법제자로서 우리는 법 속에서 심신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 거대한 법난에 직면해 사부님을 지키고 대법을 실증하며 중생을 구하는 것은 대법제자들의 거절할 수 없는 책임이자 신성한 사명입니다. 그때 전국 각지의 수많은 대법제자가 잇달아 나와 몸을 바쳐 법을 수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며 인간 세상에 수많은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2000년 봄, 대법을 실증하고 사부님의 결백함을 회복시켜드리기 위해 저는 거대한 압력을 무릅쓰고 나와 공개적으로 연공했습니다. 첫날 새벽, 저는 야외에서 홀로 한 시간 동안 가부좌했는데 눈물이 마치 끊어진 실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연공이 끝났을 때 저는 길가에서 몇몇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새벽 야외에서 연공했고 일주일 넘게 지속했는데, 매일 일부 민중이 묵묵히 지켜보았고 어떤 사람은 “봐요, 파룬궁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동공(動功)을 연마할 때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경찰차를 몰고 와 강제로 저를 납치해 불법 감금했고, 그 후 저는 풀려났습니다. 이후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많은 수련생과 마찬가지로 거처가 일정치 않게 되었습니다.

진상을 알리고 대법을 실증할 때 저는 불법적으로 납치되었습니다. 검은 소굴에서 경찰의 사주를 받은 죄수들은 저를 강제로 ‘전

향(수련 포기)’시키고 다른 수련생을 배신하게 하려고 많은 고문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갱신된 제 생명이 사부님께서 주신 것임을 깊이 알았기에, 사부님에 대한 저의 감사와 정신(正信)은 반석과 같이 견고해 이미 제 생명의 가장 미시적인 곳까지 녹아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수련생도 불지 않았습니다.

검은 소굴에서 저는 밤낮으로 체벌을 당했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해 수면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줄곧 사부님의 법을 외웠습니다.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고,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다(難忍能忍, 難行能行)’(전법륜), ‘살아 바라는 것 없고 죽어 애석할 것 없네 / 허망한 생각 다 떨쳐 버리면 부처 수련 어렵지 않다’(홍음-무존).

저는 체벌로 거의 두 달간 잠을 자지 못해 몸이 극도로 고통스러웠고 심장이 매우 아팠으며 다리와 발이 심하게 부었고 머리와 두 눈이 모두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자신이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공중에서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의 육신이 여전히 검은 소굴 안에서 벽을 향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제 원신(元神)이 몸을 떠난 것을 의식했습니다. 저는 ‘내 사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저는 몸으로 돌아왔고 거대한 고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사악한 사람 몇 명이 가죽 허리띠와 신발 등으로 끊임없이 저를 구타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는데, 몇 시간이나 계속됐고 그들이 지쳐서야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몇 시간 동안 제 몸이 거대한 에너지에 감싸여 마치 사부님께서 법에서 말씀하신 금종조(金鐘罩), 철포삼(鐵布衫)과 같이

타격을 막아내는 방어 기능이 있어 제 몸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사부님의 법신(法身)이 제자 곁에 계시며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를 때린 악인에 대해 자비심이 생겼고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진맥진해 지친 그 악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신의 길을 걷는 대법제자를 박해해 지은 죄업은 장차 갚아야 할 것이기에 마음속으로 일말의 연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번은 악질 경찰 몇 명이 더 악독한 방법으로 저를 다루려 했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그들을 제지하며 대법제자를 박해해서는 안 되고 선악에는 응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념(意念)으로 그들을 정(定)해 버렸는데, 그들은 잇달아 뒤로 물러나더니 멍하니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악의 저에 대한 박해는 해체되었는데, 저는 아마도 정공(定功)이 작용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법은 자비와 위엄이 함께 있기에 대법제자의 정념이 강하면 신통을 사용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법의 위력이 인간 세상에 체현된 것입니다.

검은 소굴에서 저는 감시범에게 엄격히 감시당해 비록 정상적으로 법공부하고 연공할 수 없었지만, 저는 “하나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만 가지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다(一個不動能制萬動)!”(2005년 캐나다법회 설법)라는 사부님의 말씀을 확고히 기억했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법을 외웠고 사부님의 가지(加持)를 느낄 수 있었으며 몸이 에너지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다른 수감자들은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도 춥다고 느꼈지만, 저는 제가 가진 몇 벌 안 되는 따뜻하고 두꺼운 옷을 몸이 약한 수감자들에게 주었고, 저 자신은 아주 얇은 옷을 입고도 춥다고 느끼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불가사의하다고 여겼습니다.

마굴(魔窟) 속의 생활과 위생 조건은 아주 열악했고 여름에는 모기와 벌레가 많아 저와 함께 갇힌 사람들은 늘 모기와 벌레에게 물렸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모기가 많아 피부가 물려 가렵고 붉게 부어올라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모기에 물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모기와 벌레에 물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은 모두 땀을 비 오듯 흘리며 무더위를 견디기 힘들어했지만, 저는 마음을 내려놓자 절로 시원해져 몸이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 수련은 성명쌍수(性命雙修)이기에 심성을 제고하기만 하면 대법제자의 몸은 고에너지 물질에 의해 서서히 전환됩니다. 사람들은 제 몸에서 파룬따파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들은 모두 대법을 매우 경탄해 마지않았으며, 여러 사람이 대법 진상을 알게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서약을 실현하다

검은 소굴에서 나온 후 저는 서둘러 법공부하고 마음을 닦으며 안으로 찾았습니다. 수련에는 작은 일이 없으며 일사일념(一思一念)을 모두 법 속에서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야 하는데, 저는 수련이 극히 엄숙하다는 것을 더욱 의식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정법 노정을 바짝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대법제자의 정념은 위력이 있다”(정진요지2-대법제자의 정념은 위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도 이 점을 실증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날씨가 무더웠는데, 하루는 제가 밖에서 집으로 막 돌아오니 우리집 밖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틀림없이 경찰이 우리집에서 가족을 소란스럽게 하고 저를 박해하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신속히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은 맑았고 미풍조차 없었습니다. 길에서 저는 강력한 일념(一念)을 내보냈습니다. ‘절대 사악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절대 사악이 내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집의 어떤 물건도 건드리지 못하며, 사악한 무리는 조속히 우리집을 떠나라.’ 저는 마음속으로 묵묵히 사부님께 가지를 청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날씨가 크게 변하더니 갑자기 광풍이 크게 불고 먹구름이 뒤덮여 낮이 밤처럼 캄캄해졌으며,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찢어진 듯 큰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행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방으로 비를 피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빨라 마치 신화 이야기 같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경찰이 당시 우리집에서 저를 납치하려고 제 가족을 위협하고 공갈했으며, 가족들이 그들에게 저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크게 변해 낮이 갑자기 밤으로 변하고 광풍이 크게 불자 경찰은 무서워서 허둥지둥 도망쳤고 사악한 박해는 이렇게 해체되었습니다.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주셔서 이번 난을 해결해주신 것입니다.

## 역병 기간 자유롭게 출입문을 드나들다

2020년 초,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가 전면적으로 폭발하자

중공은 극단적인 봉쇄를 취해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건강 코드 스캔 등 강제 조치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수련하기에 어떤 방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으며, 외출할 때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안색이 불그레하고 윤기가 돌았으며 한 번도 역병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의 진상을 아는 친척과 친구들도 역병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파트 정문, 입구 및 주요 도로의 출입구에는 모두 검문소를 설치해 전담 인원이 지켰고, 통행하려면 신분증, 출입증, QR코드 스캔, 얼굴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때로 다른 아파트를 드나들 때 출입증이 없었고 QR코드나 얼굴 인식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대법제자의 정념은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출입구 앞에서 일념을 내보냈습니다. ‘사악의 불법 감시를 철저히 부정하며 그들이 날 보지 못하게 하라, 저는 정상적으로 출입할 것이다.’ 과연 매번 문을 지키는 사람은 저를 보지 못했고 저는 당당하게 자유로이 통행했습니다.

역병 기간에 한 수련생이 몸이 좋지 않아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수련생을 방문해 교류하고 싶었습니다. 그 수련생 집 건물은 방범문이 있어 드나들 때 출입 카드를 찍어야 했습니다. 저는 출입 카드가 없었고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으며 마음이 아주 순수해 단지 그 수련생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손으로 당기자 굳게 닫힌 방범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노 수련생의 집 문을 두드리자 수련생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왔어요.” 수련생은 신기해했습니다. “출입 카드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부님의 도움입니다.”



사부님께서는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 때로는 꿈속에서 제게 신기한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한번은 꿈속에서 층층 우주를 통과해 먼 천계(天界)로 가서 아름다운 천국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장엄하고 신성하며, 누각과 집들은 금과 옥처럼 예쁘고 반짝이며, 산과 물이 맑고 수려해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감상하며 기분 좋아할 때 먼 천계에서 크고 넓은 소리가 들려왔는데, 대략 제 사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또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 세상은 우리가 진정한 고향이 아니며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곳에 잠시 머물며 서약을 실현하고 사명을 완수할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아름다운 천궁(天宮)에 있으며 새 우주는 비할 바 없이 아름다운바, 그곳 중생들은 그들의 주(主)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우리의 수련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글/ 중국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심명(心明)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5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오

랜 대법제자입니다. 중국 제22회 명혜망 중국법회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래에 지난 30년 동안의 수련 체득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 1. 처음 법을 얻다

수련 전의 어느 날 밤, 저는 회사에서 야근하다 막 연공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웃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이웃이 파룬따파가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 갑자기 대법 책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 대법 책을 빌려와서 보다 보니 놓을 수가 없었고, 마음이 얼마나 격동되던지 ‘나는 이 대법을 얻기 위해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연공장에 가서 다섯 가지 공법을 따라 배웠습니다.

그날들은 즐겁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날들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 천목을 열어 주셔서, 천목의 터널 속을 날아다니고, 원신(元神)이 몸을 떠나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사유와 의식이 하늘로 올라가 회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 2. 직장환경 속에서 자신을 수련하다

대법을 얻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상사가 저에게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많고, 더럽고, 힘든 일을 맡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관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는 불공평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체면이 매우 강해 불공평한 일이 생기면 사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법을 수련하니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도 내지 않는 걸 본다면 얼마나 약하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이 뒤집히고 요동쳐 참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닦아 제거하기 위해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수록 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했고, 이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침내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평온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사는 “앞으로는 안 해도 돼. 좀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정말로 제 수련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연설문을 출력해 달라고 했는데, 그 안에 대법을 모독하는 내용이 있어 저는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출력해서 가져갔더니 수정해서 다시 가져왔고, 보니 또 그 내용이 있어 저는 또 삭제했습니다. 그는 다시 더해서 넣었고 저는 또 삭제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가리키며 “넣으세요”라고 하여, 저는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쓰신 것은 사실이 아니고 대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넣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럼 됐어요”라고 하며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무실 동료도 제가 대법을 수련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는 그녀에게 진상을 알려 삼퇴(중공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사무실에 없을 때 그녀가 제 컴퓨터로 대법을 모독하는 내용을 출력했는데, 막 출력해서 저장하자마자 파일이 지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출력해 저장하니 또 지워졌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그녀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컴퓨터가 대단하네요, 제가 그런 걸 출력하면 저장도 못하게 하네요.” 저는 “당신도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좋지 않아요”라

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사무실을 몇 군데 더 옮기게 됐고 동료들에게 진상을 알려 삼퇴하게 했습니다. 어떤 동료의 아버지는 회사 당서기인데, 이 동료도 비교적 완고하여 제가 그녀에게 거의 2년 동안 진상을 말해준 뒤에야 삼퇴했습니다.

저는 표준에 맞는 대법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제 일만 성실히 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일도 절반, 심지어 대부분의 일을 도왔습니다. 한 번은 인원 감축을 한다고 하여 우리 셋 중 한 명이 체면도 서지 않는 불결한 부서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상사는 저에게 갈 필요 없다고 했지만 동료 두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자리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상사는 결국 우리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했고, 한 달 남짓 그렇게 하다가 다시 원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즐겁게 일했고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한결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동료 L은 자진해서 서기 사무실로 가서 “저는 그분에게 감탄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요,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라고 말했고, 서기도 웃으며 인정했습니다.

### 3. 가정환경 속에서의 수련

수련 전에는 남편과 늘 다투곤 했습니다. 수련 후에는 맞아도 반격하지 않고, 욕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았으며, 대법의 높은 기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했습니다.

한번은 남편이 사소한 일로 저에게 화를 냈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대꾸했더니 남편이 욕을 했습니다. 예전의 저는 남편에게 절대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귀하게

자라 부모님에게도 큰소리를 칠 만큼이었으니 누구에게 양보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저는 수련인이니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억울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울자 본인도 우시며, 마치 저보다 더 억울하신 듯 얼굴을 붉히며 우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그러는 것을 보고 더욱 격화되어 저를 심하게 욕했습니다. 큰시누이는 제 아들을 안고 다가와 아들이 저를 때리게 하려 했고, 아들은 울면서 “엄마 때리래, 엄마 때리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가 비록 어리고 철이 없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저는 견딜 수가 없었고, 슬픔이 극에 달해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을 포기할 수 없고 이 고비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사부님, 제자는 오성이 부족하지만 반드시 이 고비를 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비를 넘는 데 거의 반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반년 간의 이 일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마지막에는 점점 열어져 결국에는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대법의 요구에 따라 가족을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큰시누이는 제가 집에 없을 때 제 가방을 하나하나 뒤졌고, 시동생도 제가 없을 때 집 물건을 가져갔지만 저는 그들과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우리집에 와 지내셨고, 저는 잘 돌봐드리며 먹고 입는 것, 생활용품, 금전 면에서도 만족하게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느꼈던 원망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 몫의 효심을 다하려고 노력하여

온 가족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대법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모두 삼퇴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도 저는 똑같이 대했습니다.

#### 4. 정념으로 사악을 해체하고 정체에 녹아들어 수련하다

##### 1) 사악한 게시판, 현수막을 제거하다

어느 날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유치원 로비 게시판에 대법을 모독하는 문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 오가는 사람이 많아 저는 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후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대법제자가 대법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음 날 아이를 조금 더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데리러 가서 다른 학부모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부님께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게 해 달라고 청을 드리고, 미리 젖은 수건을 준비해 갔습니다. 유치원 로비에 도착하니 정말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젖은 수건을 꺼내 게시판에 대법을 모독하는 문구를 지운 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두려움이 너무 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사악한 게시판의 문구가 제거되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집 아래에 대법을 모독하는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아파트 대문 옆이었으며, 그 옆에는 보안 초소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방과 후 저는 아이와 상의하며 “사부님께 우리를 가지(加持)해 주시기를 청하고, 비가 올 때 너는 우산을 들고 가려주렴, 그럼 내가 먹물을 넣은 물총으로 현수막을 지워버릴 테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정말 비가 내렸고 저희 둘은 계획대로 분무하여 현수막을 지웠습니다. 빗물의 작용 때문에 효과는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파트 정문 옆의 그 대법을 모독한 현수막은 관리사무소에서 떼어냈습니다.

## 2) 묵묵히 보충하며 정체에 협력하다

제 주변 수련생들은 모두 매우 정진합니다. 자료점을 곳곳에 꽃을 피웠고, 저 역시 작은 한 송이를 피웠습니다.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이 발표된 후 책이 비교적 두꺼워서,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려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심이나 주말 휴식 시간을 이용해 ‘9평’을 서둘러 출력하고 나면 수련생들이 제본하여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 후 설날이 가까워져 명혜 진상 달력을 대량으로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했는데, 저는 다시 스스로 시스템 설치를 배워, 시스템을 다룰 줄 모르는 수련생들의 컴퓨터 업데이트도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몇몇 노수련생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몰라 저는 자발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진상 소책자를 대신 담당해 ‘명혜주간’과 명혜 라디오 방송을 다운로드하여 제공해 주었고, 명혜망을 열람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사부님의 안배로, 노수련생들과 함께 수련하지 않은 날들에는 저 역시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노수련생들과 협력하면서 저는 정체에 잘 협력하게 되었고, 모두와 함께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 5. 중생이 대법 진상을 이해해 복을 받다

2001년, 한 수련생이 함께 베이징 천안문에 가서 대법을 실증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했는데 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법제자로서 대법을 수호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며, 그것이 저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이틀 전 저는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아버지께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미래를 위해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여쭙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을 구하면 손해는 아닌 것이고, 두 사람을 구하면 한 사람 버는 것이며, 많은 사람을 위해서라면 대단히 값진 일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 댁을 나왔습니다.

수련생과 저는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갔고, 천안문으로 가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파룬따파하오! 파룬따파는 정법입니다! 우리 사부님의 결백을 회복시켜주세요! 대법의 결백을 회복시켜주세요!” 이 과정에서 사부님께서는 줄곧 제자를 보호하며 일깨워주셔서, 우리는 순조롭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던 시기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이 고집스러운 우리 딸을 바꿀 수 없었는데, 대법이 너를 바꿨다! 나는 대법에 감탄했고 너를 지지한다. 네 남편이 너와 이혼하든 회사에서 너를 해고하든, 내가 널 부양할 것이다.”

부모님의 생활도 매우 어려운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순수한 일념이 아버지께 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귀가 들리게 되셨고, 눈도 침침하지 않게 되셨으며, 연금도 받고 주택도 갖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90세가 넘도록 별 탈 없이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큰언니도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큰언니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 때문에 차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진상을 알고 있던 언니는 서둘러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암송했습니다. 차는 길을 따라 멈춰 섰고, 마치 누군가가 딱 맞춰 세워둔 듯했습니다.

둘째 언니네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 온 가족은 모두 대법 진상을 이해하고 삼퇴했습니다. 원래 바르게 살지 않던 둘째 형부와 조카가 모두 잘못을 고치고 바른길로 돌아섰습니다. 조카는 그리 총명하지 않아 일반 고등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조카가 대학에 붙는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못했는데, 결국 조카는 대학에 합격했고 이해심 많은 아내를 맞아 총명하고 귀여운 아들도 낳았습니다.

둘째 형부가 위암에 걸렸을 때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외우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위암이 완치되었습니다. 마치 새 위를 달아준 것처럼 몸은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둘째 언니의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집의 수십만 위안의 빚을 다 갚고 저축도 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종종 대법 책을 꺼내 읽곤 하는데, 꿈에서 위험을 만나면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라고 외칩니다.

가족들이 받은 복은 정말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사부님의 당부를 잊지 않다 (상)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전, 우리는 신(神)의 광환(光環)을 버리고 삼계(三界)로 내려왔습니다. 대법(大法)에 동화하고, 사부님을 도와 정법[助師正法]하고 중생을 구하는 사명을 완수해 새로운 우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1998년, 저는 전 우주에서 제일가는 칭호를 갖춘 생명-대법제자가 되어 자신의 오래전 서약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고통도 있었고 미망(迷茫)도 있었으며 기쁨도 있었지만,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비틀거리면서도 용케 걸어왔습니다. 이제 저의 27년간 주요 경험을 사부님께 보고하고 수련생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 1. 수련을 다그치다

1998년 봄, 제 몸은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불면증, 비염, 만성 기관지염, 위장병, 치질, 치열, 습진, 관절염 등 몇 가지 병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위장병이었는데, 당시 정말 식욕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출근해야 했기에 억지로 두어 숟가락 뜨는 정도였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기운이 없어 침대에 누웠고, 아내(수련생)가 밥을 차리면 일어나 두어 숟가락 뜨고는 다시 눕곤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제게 성(省)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라고 재촉했습니다(우리 부부는 모두 의사입니다). 저는 “위장병인데 검사할 게

뭐 있어, 어차피 치료약도 없는데”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를 이기지 못해 성 제3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염, 십이지장염에 궤양도 두 개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궤양 부위에서 병리 검사까지 했는데 아내는 깜짝 놀랐지만 다행히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좋은 처방으로 약을 썼고, 아내의 감독하에 매일 식전에 약을 먹었습니다.

그전에 아내는 이미 법을 얻은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집에 가져온 대법서적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책을 보게 됐는데, 열흘 정도 만에 당시 출판된 사부님의 저작을 모두 읽었습니다. 책을 보는 동안 저는 약 먹는 것을 잊었고, 아내도 감독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문득 어느 날 아내가 “약 먹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며칠 동안 안 먹었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그런데 당신 안색이 훨씬 좋아졌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신 매일 저녁에 나가던데, 오늘 당신들이 뭘 하는지 같이 가봐야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따라 법공부팀에 갔고, 그때부터 반본귀진(返本歸眞, 진정한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감)하는 대법 수련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전에 저는 불면증으로 잠들기 힘들었는데, 그날 밤 돌아와서 11시 30분에 불을 끄자마자 꿈나라로 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갔는데, 무척 고요했고 내려다보이는 경치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녹색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편안했습니다. ‘중국의 좋은 곳도 좀 다녀봤지만 어디도 이렇게 좋은 곳은 없었어, 여기가 어디지?’ 즉시 입체감이 매우 강한 목소리가 마치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여기는 파룬(法輪) 천국이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다시 잠들었는데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수련을 다그치라.” 저는 또 깰고 시계를 보니 11시 40분이었습니다.

10분 동안 두 번의 꿈을 꿔는데 무척 선명했고 중간에 한 번 깨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회상해도 마치 어제 일 같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공을 마치고 보도원에게 이 일을 말하자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누구 같았어요?” 제가 “모르겠어요”라고 하자, “연공 음악의 구령 소리와 같지 않아요?”라고 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정말 똑같았습니다. 바로 사부님이셨습니다. 보도원은 “당신 인연이 얹지 않군요”라고 했습니다.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 저는 직장에서 면직됐지만 제 사무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구체적인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기에 저는 출근해서 문을 닫고 책을 보며 법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이야 깨달았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조속히 제고하도록 사부님께서 세밀하게 배치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몇몇 수련생은 상의하여 현지에 몇 개의 법공부 팀을 만들었고, 1999년 ‘7·20’ 이전의 그런 단체 법공부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가 제고하는 데 가장 빨랐습니다.

법공부는 사부님께서 당부하신 ‘세 가지 일’ 중 첫 번째이기에, 저는 줄곧 법공부를 첫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법공부를 하고, 법을 많이 공부하며, 법을 잘 공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깊이 체험했고 법을 많이 공부하는 것의 아름다움도 깨달았습니다.

## 2. 명혜망과의 인연

박해 초기,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명혜망

의 태도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2000년 6월 15일 명혜편집부 통지 ‘7월 22일 이후 두 번째 진정한 신경문이 곧 발표된다’ 중)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안 하는데 어떻게 명혜망의 태도를 알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법공부를 많이 하고 《명혜주보》를 읽으면서, 저는 정법시기 대법제자로서 명혜망을 봐야 하고 정법 노정을 따라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작은 꽃’(자료점) 하나를 피워야 했습니다. 2005년 말, 기술 수련생이 제 요청으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매해줬고 한 번에 인터넷과 컴퓨터 기본 조작법까지 가르쳐줬습니다.

명혜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당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 컴퓨터가 생겨 매일 명혜망에 접속해 집에 돌아가 보니, 사부님께서 그곳에 앉아 우리를 보고 계신 모습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매일 전 세계 수련생들의 교류 원고를 보면서 더욱 호랑이에 날개를 단 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명혜망에 발표한 첫 번째 글은 현지 사악을 폭로한 교류 체험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훗날 하게 될 주요 과제에 씨앗을 심은 것일 겁니다.

매일 명혜망을 보니 제고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쓴 원고를 명혜망에 직접 투고하고, 게재된 원고가 수련생(편집자)에 의해 수정된 것을 보며 저는 그 부분을 왜 수정했는지 주의 깊게 봤습니다. 나중에 저는 영광스럽게도 ‘명혜망 통신원’이 됐는데, 압력과 이 업무의 무게감을 느꼈고 동시에 모든 법을 실증하는 업무를 더욱 잘하도록 격려받았습니다. 20여 년간 저는 정법 수련의 길에서 명혜망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50대였고, 예전에는 컴퓨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컴맹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전법륜)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비로운 사부님의 보호 하에 대법제자는 못 할 것이 없으며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명혜망에 실린 수련생들의 교류 문장 한 편 한 편은 저의 수련 제고에 지대한 촉진 작용을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내가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여 년간 저도 자주 명혜망에 수련 체험 문장, 시사 평론, 뉴스류 문장 등을 투고했는데, 편마다 수련생들의 심혈과 지혜가 스며있습니다.

명혜망은 제게 《9평 공산당(九評共產黨)》(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제작법을 가르쳐줬습니다. 《9평》 제작 수량을 늘려야 했을 때, 명혜망에 나무 합판을 이용한 기술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그림대로 도구를 제작해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더 넓은 범위로 《9평》을 제작해야 했을 때, 명혜망에는 ‘자료점에서 수동 제본기 사용 추천’이 나왔습니다. 더 선진적인 ‘무기’가 생기자 우리는 가장 빠른 속도로 수만 권의 《9평》을 만들어 담당 구역의 가구당 한 권씩 빠짐없이 배포했습니다.

정법 노정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명혜망 문장 속에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시 명혜망 문장에서 어떻게 정법 노정을 따라가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7월 6일, 명혜망 톱기사에 ‘폭죽을 사고 폭죽을 터뜨리자’라는 글이 발표됐는데 주제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것이 정법 노정 중에서 대법제자가 시기적절하게 협력해야 할 대사(大事)임을 깨달았습니다. 핵심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념을 움직이고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생들과 교류하고 즉시 폭죽을 사고 터뜨리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2015년 5월, 대법제자가 악의 수괴 장쩌민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 양식이 나오자 우리는 곧바로 고소장을 최고 검찰원에 발송했습니다.

《9평》이 발표된 후, 우리는 법에서 《9평》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책을 만들 뿐만 아니라 《9평》 배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와 함께 검토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누구나 다 참여해 주로 사회 주류 인사들에게 증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여 년 전 빠짐없이 배포했던 구역에 새로 늘어난 구역을 더해 가구당 한 권씩 다시 배포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명혜망 2024년 12월 18일, 19일에 ‘법난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자’, ‘정사대전과 또 한 차례의 큰 시험’ 등 세 편의 교류 문장이 실렸습니다. 일독 후 저는 즉시 발정념(發正念) 대열에 합류했고, 동시에 수련생들에게 알려 모두 조속히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 3. 자료와의 인연

만사에는 정해진 수[定數]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중에서 한 모든 일이 자료와 인연이 있도록 정해져 있었나 봅니다. 2002년, 저는 사악에게 가택수색, 납치, 불법 감금, 갈취, 면직 등 박해를 당했고 나중에 이른바 ‘처분보류(取保候審)’로 석방됐습니다. 당시 ‘두려움’이라는 물질이 아직 매우 짙었습니다. 협조인은 제게 인조 가족으로 스프레이용 템플릿을 만들라고 했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는데, 사실 이것도 사부님께서 제게 두려운 마음을 없애는 과정을 안내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반년 후, 협조인은 상의도 없이 갑자기 1대3 복사기(CD 복사 타워) 한 대와 공 디스크 네 상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거절할 방법도 없었고 거절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는 원본 디스크는 자신이 제공하고 소모품은 제가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즉 매주 완제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계 설명서는 온통 영어라 볼 수도 없었고 그도 영어를 몰랐는데, 그는 “당신이 천천히 연구해서 해 보세요!”라며 기계만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우리집은 방 세 개에 여섯 식구인데 아이들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이런 복사기를 집에 두는 것이 마치 폭탄 하나를 둔 것 같아 언제 터질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저와 먼저 상의도 없이 기계를 집으로 들였다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쩔 거냐며 계속 원망했습니다. 저는 “일단 만약은 말하지 말고 우리 천천히 해봐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상 CD 제작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조작법을 익혔고 완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 두려움은 여전히 컸는데, 아이들이 모르게 해서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매일 밤 12시 발정념을 마친 후부터 새벽까지 복사했습니다.

기계가 올 때 설정된 복사 속도는 12배속이라 한 번 굽는 데 7~8분이 걸렸습니다. 설명서를 볼 수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으며, 복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몰라 매주 복사 시간이 20여 시간에 달했습니다. 매 정시마다 발정념을 해야 하고 기계도 쉬게 해야 했기에 매일 밤 많이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새벽 3시 넘어서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태는 2006년까지 지속됐

는데 기술 수련생이 와서 속도를 조절해준 뒤에야 바뀌었습니다.

공 디스크 200장은 금방 동났고 시내에 가서 사야 했는데, 시장도 모르고 가격은 더더욱 모른 채 멍하니 전자상가를 돌아다니다가 똑같은 도안의 디스크가 보이면 샀습니다. 상인이 부르는 게 값이었고 흥정할 줄도 몰라 물건을 사면 얼른 집으로 왔는데, 무사히 집에 오는 게 당시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다 쓰면 다시 그 집에 가서 샀는데, 시간이 흘러 두려운 마음이 점차 꺾여나가자 비로소 전자상가를 돌아다니며 다른 집 가격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장당 몇백 위안씩 속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너무 가슴 아팠지만 교훈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평》 CD가 나온 후, 다른 진상 CD 외에 《9평》 CD(한 세트 6장)까지 더해지자 복사해야 할 수량이 크게 늘었고(당시는 VCD였습니다), 제 업무량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매주 CD 평균 소요량은 400~500장, 명절 때는 600~700장에 달했고 가장 많을 때는 한 주에 거의 1천 장을 굶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 복사기가 일찍 일어난 아이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이 ‘가정의 비밀’은 집안에서 공개됐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모두 진상을 알고 대법을 지지하게 됐는데, 발견하고도 아무 말 없었으며 무척 평온해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 심성이 위치에 도달해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두려움’의 장(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이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상유심생(相由心生)’(상은 마음에서 생긴다)일 것입니다.

명혜망 웹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지방 정기간행물을 발견했는데 소책자도 있고 전단도 있고 《명혜주보》 지방판도 있었

습니다. 당시 머리에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자료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 타자를 배운 상태라 편집, 조판 등은 전혀 몰랐기에 자료를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 후 자세히 연구하고 비교해보니 《명혜주보》 지방판이 가장 간단해서, 어떤 텍스트 상자의 내용을 현지 내용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되고 다른 건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공 후 명혜망에 투고했고 발표됐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각지의 진상 자료를 대량으로 훑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다 현지 악인과 악경(惡警)을 폭로하는 내용임을 발견했습니다.

사부님 말씀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악경(惡警)과 나쁜 사람을 폭로하고 사회에서 그 사람의 악행을 공포(公布)하는, 이런 방법은 이성(理性)이 없는 그런 악인을 두려워 떨게 하는 더할 수 없는 큰 작용을 일으켰다. 동시에 또한 현지에서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중에 민중들에게 사악의 박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폭로와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또 거짓말에 독해되고 기만당한 민중을 구도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대륙의 전체 대법제자들과 신수련생들이 모두 이 일을 잘하기를 희망한다.”(정진요지3-수련생 문장에 대한 평어) 저는 마치 단번에 방향을 찾은 듯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협조인 수련생을 찾아가 말하니 그도 동의했지만, 관건은 반드시 소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모두가 사악에게 박해당한 자신의 경험을 쓰도록 격려해서 명혜망에 투고하고, 발표된 후 현지 진상 내용을 편집해야 했습니다. 소재는 비교적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당시 많은 수련생이 악인, 악경의 보복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내려면 반드시 저부터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단 시간에 제가 사악에게 박해당한 경험을 써서 명혜망에 투고했고, 또 가장 빠른 속도로 현지 진상 창간호를 편집해 명혜망에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잇따라 거의 모든 악당의 박해를 받은 우리 지역 수련생들이 자신의 박해 과정을 썼고, 우리 지역의 ‘현지 사악 폭로’ 업무가 큰 발걸음을 내디디게 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창간호를 편집해냈다고 했지만, 저는 편집, 조판 등 이런 기본 조작조차 할 줄 몰랐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 자료 수집, 집필, 편집에서 지면 디자인, 조판까지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오직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확고한 마음 하나로 억척스레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 저는 컴퓨터 옆에 앉아 마우스를 누르고 끊임없이 두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과 과정은 다시 반복하려 해도 할 수 없었고, 단지 당시 한 번만 성공한 것이니 참으로 불가사의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무엇이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전법륜)인지 진정으로 명백해졌습니다. 또 왜 모든 근본적인 것은 사부님께서 해주시고 사부님께서만 단지 우리의 이 마음만 보신다고 하는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오늘까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 4. 꾸준히 현지 사악을 폭로하다

명혜망을 탐독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악을 폭로하는 것은

정법시기에 해야 할 주제 중 하나입니다. 현지 사악을 폭로하는 중요성에 대한 제 인식 역시 수련 중에서 점차 제고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2003년 《수련생 문장에 대한 평어》가 발표된 후, 당시 저는 그 특수한 의의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1차 대법서적 글자 고치기(的, 地, 進)를 할 때, 사부님 설법 시간 전후 순서에 따라 글자를 고쳤습니다. 다 고치고 나서야 사악 폭로에 대해 좀 인식이 생겼는데, 당시는 정말 진지하게 한 글자 한 문장씩 통독하며 고쳐야 할 글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글자 고치기였지만 느낌이 무척 좋았고 법공부가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은 아직 악인 개인에 대한 폭로를 시작하지 않았고, 당시 제가 한 것도 공개 서신 같은 종합적인 박해 폭로 문장과 악인들의 업보 소식 등을 쓰는 정도였습니다. 진정으로 사악 폭로 항목을 시작한 것은 제가 직접 컴퓨터를 사고 직접 인터넷에 접속해 매일 명혜망이라는 이 ‘집’에 돌아와 본 뒤부터입니다. 명혜망의 방대한 교류 문장과 각지의 박해 폭로 문장 및 각지 진상 자료 등은 제가 사악 폭로, 특히 현지 사악 폭로에 대해 진정으로 질적인 비약을 하게 했습니다.

우선 저는 현지 사악 폭로 인식에 대한 체험 문장을 써서 명혜망에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현지 주요 박해자들의 대법에 대한 범죄 사실과 그들이 업보를 입은 문장을 써서 명혜망에 투고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지역에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비바람이 몰아쳐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4월 하순, 북방의 기후는 따뜻해지다가도 추워지는데 통상 이런 날씨가 나타날 리 없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튿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 번개와 천둥에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정부 청사 2층 소회의실에 불이 나서 소방차까지 요란하게 출동했대.” 오후에 명혜망을 열어보니 제가 투고한 원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녁에 협조인 수련생과 우리가 세 든 집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방이 환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셋방살이 1년 넘게 한 번도 켜진 적 없던 100촉짜리 전구가 켜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번개와 천둥, 비바람과 소회의실(중공 악당이 이곳에서 여러 차례 파룬궁 박해를 밀모하고 배치함) 화재의 원인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공간 정(正)과 사(邪)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켜진 적 없던 전구가 갑자기 켜진 것은 우리에게 대한 격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조판을 할 줄 몰라 시내의 기술 수련생에게 부탁해 이 문장을 진상 전단으로 만들어 현지에 광범위하게 배포했습니다. 모두 현지의 실제 인물과 실제 사건이라 국민들이 다 알고 볼 수 있어서 피드백된 정보가 무척 좋았습니다. 민중이 진정으로 현지 악인, 악경이 파룬궁을 박해해 업보를 입은 진상을 보게 했고, 이들이 파룬궁을 박해한 비참한 말로를 보게 했으며, 동시에 그 악인, 악경들을 크게 떨게 했습니다.

이어서 수련생들과 교류하며 모두 두려운 마음을 닦아버리고 현지 사악을 폭로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자 수련생들의 박해 폭로 문장이 점차 많아졌고, 제가 편집하는 현지 진상 간행물에 비교적 많은 원고 소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20년 가까이 현지 진상 보도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저의 수련 제고는 매우 컸습니다. (계속)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사부님의 당부를 잊지 않다 (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전편에서 계속) 현지 사악을 폭로하고 현지 진상 자료를 제작하는 것은, 첫째는 현지의 악인과 악경(惡警)을 강력하게 제압하고 제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이곳의 비교적 느슨한 수련 환경을 개창한 것이며, 셋째는 가장 관건적인 것으로서 중생이 대법(大法)을 이해하고 진상을 알게 한 것이고, 넷째는 악인과 악경의 범죄 사실을 인간 세상에 대량으로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그들의 악행과 추한 일을 알게 하여, 다른 측면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대법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말하면 이 역시 이런 무리에 대한 일종의 특수한 구원입니다.

한번은 파출소의 어느 경찰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을 폭로하는 글이 명혜망에 발표됐는데, 글에서 언급된 한 악경의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는 매우 창피하게 여겨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파출소의 상급 기관인 공안국을 찾아가 지도자에게 “내 아들이 당신들 따라 공산당 일을 하다가 이 지경이 됐으니 우리가 분풀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에휴, 우리를 욕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각자 알아서 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치민 노인은 공안국 마당에서 “앞으로 누가 또 파룬궁 일에 관여하면 그놈은 X자식이다!”라고 크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한 악인의 동서는 우리 수련생에게 “그 사람도 당신들의 악인



명단에 올랐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중공(중국공산당)이 중국 국민에게 명혜망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그들 자신은 다 임무로 보고 있으며, 전 세계가 명혜망을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현지 사악을 폭로함에 있어 저는 추적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일단 박해 소식이나 업보를 받은 일을 듣기만 하면 저는 쫓아가서 상세한 상황을 파악했고, 명혜망에 폭로한 뒤 다시 현지 진상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한 것이 바로 20년의 연마였습니다. 그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가장 큰 수확은 이 점에 있어서 사부님의 정법(正法) 노정을 따라갔다고 느껴지는 것인데, 적어도 이 점에서는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해내어야 수련이로다”(홍음-착실한 수련)를 힘껏 실천했습니다.

## 5. 의외로 얻은 것

사부님께서 “대법을 배우는 자체가 곧 복을 받은 것”(북미 제1기 법회 설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법(法)을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사부님의 9일 학습반을 따라다니셨던 노부부 수련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더블 데크 녹음기 구매를 논의할 때 그분들은 제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대법에 사용하는 물건을 살 때는 무조건 가장 좋은 것을 사고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사부님께서 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 그리하여 저는 나중에 현지 시중에서 가장 좋은 일본산 ‘아이와’ 더블 데크 카세트 라디오를 찾아 900여 위안(당시 한 달 월급)을 주고 사서 전문적으로 사람들에게 테이프를 복사해 주었고, 또 일본산 소니 비디오 녹화기를 사서 전문적으로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틀어주었습니다.

다년간 사부님의 가르침을 저는 줄곧 마음에 새겼고, 노수련생의 당부를 줄곧 수련 길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20여 년의 수련 중에서 저는 줄곧 사부님의 가르침인 “해내어야 수련이로다”(홍음-착실한 수련)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내에 가서 소모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와 아내(수련생)는 스스로 규칙을 세웠습니다. ‘구매하는 소모품 외에 기타(참여한 다른 수련생 포함) 모든 비용(식사, 차비 등)은 전부 우리가 지출하며, 절대 중생을 구하는 수련생들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집에서 차를 사니 더 편해졌습니다. 저는 운전할 줄 모르지만 일이 있어 말만 하면 아이들이 즉시 우리에게 처리해주었습니다. 20여 년간 저는 매우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을 구하는 돈은 오로지 그 용도로만 사용했고 저는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길은 반드시 바르게 걸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17년 말, 저는 여러 수련생도 기본적으로 성숙해졌으니 각자 진정으로 자신의 수련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련생들과 상의하여 자료점의 수련생마다 소모품은 자기가 쓰는 만큼 각자 사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이 ‘○○ 수련생은 수입이 없어 혼자 사기 어렵다’고 제기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모든 소모품은 제가 무료로 공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동시에 가족들에게 “○○가 우리집에 와서 무슨 물건을 가져가든 그냥 그에게 내드려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듬해 그 수련생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십몇 년간 단체 구매를 했기에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 여러 수련생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지퍼백이나 양면테이프 등을 아무도 사지 않고 예전처럼 모 수련생 집에 가서 마음대로 쓰곤 했는데, 저는 묵묵히 채워 넣었습니다. 2년 뒤에야 비로소 수련생들이 이 일을 생각하고 스스로 구매하러 갔지만 제 마음은 아주 답답했습니다.

2022년 명혜망에 ‘《9평 공산당》 고화질 컬러 선장본(전 9권)’에 관한 글이 실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전에 널리 배포할 때 빠뜨렸던 구역에 다시 한번 배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수련생마다 1000여 권의 《9평》 책이 필요했습니다. 두 수련생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저는 무료로 인쇄 용지를 제공했고, 또 한 수련생은 직접 자료를 만들지 않아서 제가 그에게 완성된 책을 제공했습니다.

또 한 농촌 지역 수련생은 예전에 교류할 때 《9평》의 작용에 매우 공감했는데, 그는 “《9평》을 본 사람은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면 거의 100% 탈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와 교류하자 그도 인정하며 《9평》을 배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없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을 조직해 잘 배포하기만 하십시오. 제가 매달 당신에게 《9평》 책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년여의 노력을 거쳐 그들 지역에 한 차례 널리 배포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깊은 산간 지역의 수련생에게 수백 권의 《9평》 책을 제공했습니다. 저의 사명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것이며, 저의 능력은 대법의 자원이고 자금 역시 대

법의 자원입니다.

저의 가정 자료점은 20여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됐는데 컴퓨터는 5대를 썼고, A3용 엡손 1390 모델만 3대를 썼으며, CD 복사 타워 2대, 각종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30여 대를 썼습니다. 그리고 대소형 카드 절단기 2대, 재단기 2대(868 두꺼운 층 재단기 1대 포함), 코팅기, 철사 제본기, 그리고 직접 제작한 기타 공구 등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중공 악당에 박해받은 지 1년 남짓 지난 후, 직장 상사가 제게 “당신은 그냥 집에서 근무하시오. 직장에 나올 필요 없소. 월급은 그대로 줄 것이고 남들에게 주는 건 당신에게도 다 주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저의 기동성은 더 커졌고, 온 마음을 다해 중생을 구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부님께서 구세력의 박해를 이용해 절묘하게 내게 해주신 일종의 안배이며, 더욱이 의외로 얻은 것[偏得]이다.’ 저는 직장에 출근할 필요 없이 전념하여 대법을 실증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후환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정말 사부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내(수련생)는 늘 저를 전수(專修)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악당에 20여 년간 박해받아 직장에서는 저를 출근하지 못하게 했지만, 저의 월급과 각종 복리후생은 조금도 줄지 않았고 매년 연말 보너스까지 지급했습니다. 첫해에 제가 연말 보너스를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상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박해받는데도 복지와 보너스를 주는 걸 어디서 봤어요? 이 돈은 사부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감히 쓸 수 없으니 이 돈으로 중생을 구하게 해야 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것 역시 사부님께서 우리 심성이 도달한 것을 보시고 나를 격려 해주신 것이겠지.’

중공 악당이 저를 20여 년간 박해했지만, 도리어 제 생명에서 가장 빛나는 20여 년이었습시다. 왜냐하면 제가 사부님과 함께 있고 정법과 함께 있으며, 자신의 오래된 서약을 실천하고 있고 전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성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악당이 저를 박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부님께서 저를 관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역시 자신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대법 실증 속에 뛰어들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줄곧 자신에게 요구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해내야 하며, 게다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고, 오로지 대법제자가 해야 할 일을 하러 가기만 한다.’ 그래서 어떤 항목에 들어가야 하면 저는 스스로 서둘러 가서 필요한 물건을 샀습니다. 또한 저는 줄곧 한 가지 원칙을 따랐는데, 대법에 필요한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을 사고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막 자료점을 세웠을 때 기술 수련생이 저에게 “무슨 책이든 책이기만 하면 반드시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해야지 잉크젯 프린터를 써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줄곧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2007년이었는데 시내 수련생이 《전법륜(轉法輪)》 책을 만드는 수련생이 무척 바쁘니 당신들이 직접 만들라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수련생은 우선 반드시 A3 프린터 한 대를 사서 책 표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3천여 위안을 들여 엡손 1390 프린터 한 대를 사서 책 표지용으로 썼고, 대형 재단기와 코팅기

등 소모품을 사서 수련생을 청해 제작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대법을 실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생구도에 필요한 것이라면 나는 오로지 하러 갈 뿐이다. 생각을 간단히 할수록 성공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기왕 이 일을 하게 된 이상 그것을 잘해야 한다. 고층 생명도 늘 나에게 말하는데, 당신들이 여기에서 대법을 위해 공헌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당신들의 미래 생명에, 상당히 긴 이후의 역사 시기에 아주 좋은 기초를 다져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들도 당신들을 부러워하는데 그들은 이런 일을 할 기회가 없다.”(창춘보도원 법회 설법)

## 6. 뒷바라지를 잘하고 짐꾼 역할을 잘하다

정법 노정이 추진됨에 따라 여러 수련생의 심성이 모두 제고됐고 작은 꽃들이 점차 피어났습니다. 우리 이곳은 노년 여성 수련생이 대다수라 수련생들에게 필요한 소모품은 다년간 줄곧 제가 구매, 보관, 공급을 책임졌습니다. 누가 무엇이 필요하면 제게 와서 가져갔습니다. 안전 각도에서 말하자면 저는 이런 방식이 대형 자료점의 운영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안전 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줄곧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불쾌한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이런 국면을 바꿔보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수련생이 줄곧 직접 구매하기를 원치 않았고 여전히 이런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늘 힘만 들고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고 생각할까요? 조화롭지 못한 음표가 나타나는 것은 저의 어떤 마음을

겨냥해서 온 것이 아닐까요?

안으로 찾고 자신을 수련하라는 사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저는 여러 차례 자신의 부족함을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확실히 자신의 많은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진정으로 자신을 수련하지 않고 갈등 속의 상대방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늘 ‘이런 일은 본래 당신들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했으니, 당신들의 감사를 바라지는 않지만 나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는 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의 마음을 맞추기 어려워 제 마음이 평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칭찬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고 다른 의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잠재된 과시심, 허영심 등이 있었습니다. 인식한 이후 나중의 수련 중에서 이런 좋지 않은 마음도 점차 많이 수련해 버렸습니다.

저는 소모품 구매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운반, 상하차 등 육체노동도 합니다. 한 해는 달력 거치대 10여 상자를 사 왔는데 한 상자에 350개가 들어 있어서 정말 너무 무거웠습니다. 차가 골목 어귀에 섰는데 수련생 집까지는 아직 멀었고, 그때 저도 60세가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상자를 트럭 적재함 가장자리로 옮겨 제 등에 올려주면 한 수련생이 제 뒤에서 부축했고, 저는 입으로 “뤄한뻬이산(羅漢背山)” (대원만법-2. 동작도해)을 외치며 억지로 한 상자씩 마당으로 저 나른 뒤 다시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또 제가 돌이켜보니 왜 당시에 자료를 만들기 시작할 때 협조인 수련생이 저에게 단독으로 구매하라고 했는지, 이것은 아마도 사부님께서 제 수련 길에 대해 질서 있게 안내하신 것일 겁니다.

어쩌면 그때 바로 사부님께서 저를 단련시켜 앞으로 계속해서 구매를 잘하도록 길을 깔아주신 것일 겁니다. 사부님의 안배임을 인식한 이상 그것은 사부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것이니, 저는 하지 않거나 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매원, 보관원, 공급원 노릇을 잘해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책임자 역시 소집인(召集人)으로서 역시 수련 중의 보통 일원이며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고 대가를 더 많이 치르는 사람이다.”(각지 설법6-아태 지역 수련생회의 설법)

저도 줄곧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노력하며 이렇게 해왔습니다.

## 맺음말

20여 년간 사부님을 따라 수련하면서 제가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반드시 법공부를 많이 하고 자신을 잘 수련하는 것이 일체의 근본이라는 점입니다. 절실하게 ‘법을 스승으로 모심’을 해내고 “일마다 대조하여 해내어야 수련이로다”(홍음-착실한 수련)를 실천하는 것이 수련의 길을 잘 걷는 보장입니다. 마지막에 이를수록 저는 ‘정법시기 대법제자’라는 이 우주 제일 칭호의 무게를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십몇 년의 수련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 속에 사존의 얼마나 많은 심혈이 녹아있는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홀로 앉아 조용히 생각할 때마다 사부님의 홍은(洪恩)을 떠올리면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저는 무슨 호언장담할 것이 없고, 오직 사부님의 명을 저버리지 않고, 사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책임을 잊지 않고, 정진하고 또 정진하여 사부님께 합격 답안지를 제출하겠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스(舍十)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정(情)의 교란을 내려놓고 더는 듣기 좋은 말에 집착하지 않다

글/ 중국 허베이 대법제자 향련(香蓮)

[명혜망] 법회는 우리 대법제자 수련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분이며, 또한 우리가 격차를 찾고 서로 참고하며 서로 제고할 기회입니다. 사부님께서 우리 수련의 길을 배치해주셨으니, 우리 대법제자는 어렵게 얻은 이 성스러운 인연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고 사부님의 자비롭고 고생스런 제도를 저버리지 않으며 사부님께 답안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정에 이끌리지 않으니 악이 스스로 소멸되다

2020년 어느 날 오후, 경찰이 아들에게 전화해 우리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밖으로 나가 진상을 알렸습니다. 이튿날 경찰이 또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저는 속으로 ‘만나려면 만나라지, 내가 밖에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데 경찰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차를 우려 놓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4시쯤 되어 그들이 우리집에 왔고, 저는 손님을 대하듯 그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한 명은 서 있고 한 명은 앉았습니다. 앉아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연공하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파룬궁(法輪功)은 이렇게 좋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다 연공하는데, 유독 장쩌민(江澤民)만이 자신의 사욕을 위해 비이성적으로 박해하고 파룬궁을 탄압했습니다. 설마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죄란 말입니까? 신앙은 우리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저는 정사(正邪)의 기준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 어느 국가, 어느 권력자가 정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파룬궁은 사회에 대해, 가정에 대해 수많은 이로움만 있고 한 가지 해로움도 없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연공할 것이고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길을 갈 겁니다. 사람마다 진선인(眞·善·忍)이 좋다고 믿는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겠습니까?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두 좋은 미래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는 파룬궁 박해에 가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그깟 돈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위배하고 양심을 팔지 마세요. 자신의 생명에 책임을 지고 가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을 마치자 두 사람은 가려고 했고 저는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또 아들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완고하니 당신들이 어머니를 설득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부에 보고해서 당신 어머니를 잡아가겠소.”

아들은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몇 차례 박해로 제가 잡혀갔던 일이 아들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둘째 아들이 우리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경찰이 우리보고 엄마 사진을 찍고 녹화하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말할 테니 엄마는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작은 수레를 밀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아직 기다리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못 해. 협조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저는 시장으로 가서 장을 보며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그날이 입동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만두를 빚고 있는데 두 아들이 방에 들어오더니 화를 냈습니다. “엄마, 우리도 좀 살게 해줘야 하지 않아요? 엄마가 좀 협조해주면 되는데, 이건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날 상관하지 마라. 난 사부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천안문 분신자살도 연출해내는데, 너희가 나더러 그들에게 협조해 사진을 찍으라는 게 천안문 분신자살과 뭐가 다르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건 사악에 협조해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너희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너희가 엄마가 잡혀갈까 봐 무서워하는 건 알지만 너희가 날 보호할 수 있겠니?”

두 아들이 큰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말해 두는데, 또 잡혀가면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마요!”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상의했구나. 그래, 너희에게 말해두지만 난 밥을 빌어먹고 쓰레기를 주워도 살 수 있어. 난 끝까지 수련할 거야. 누구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어. 나는 대법을 믿

어! 사부님을 믿어!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어!”

이때 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저는 만두를 빗다 말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부님 설법 녹음을 집어 들고 재생기를 켜자 사부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邪)는 정(正)을 누르지 못한다!(邪不壓正)”

이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어 울었습니다. ‘사부님, 제자가 잘하지 못해 사악이 틈을 타게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수련생 집으로 가서 이틀간 발생한 일을 말했습니다. ‘안으로 찾기’는 법보(法寶)인데, 왜 아들이 경찰에게 협조하려 했을까요? 제게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아들이 대법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해주지 못한다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 가족은 다 협조하지 않고 심지어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속인에게 너무 의존한 게 아닐까요? 수련은 자신의 일이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발생한 어떤 일이든 모두 수련인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법에 대해, 사부님에 대해 100퍼센트 믿는지 말입니다.

사부님께서 점화해 주신 “사(邪)는 정(正)을 누르지 못한다”가 생각나 정념(正念)이 생겼습니다. ‘이건 모두 가상이고 나에게 보여주는 연극인데 내가 정(情)에 이끌려 속인의 마음으로 아들과 다투었구나. 사실 누구도 날 움직일 수 없어.’

30분 후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싱글벙글하며 문을 열어주고는 말했습니다. “삶은 만두 드실래요? 아니면 군만두 드실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 먹으려나. 내가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는

데 다 내가 잘못했다.”

보니 그들은 마치 갑자기 판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비 온 뒤 맑게 갠 또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 2. 좋은 말 듣기 좋아하는 것에 대한 교훈

이 일이 지나가고 저는 여전히 매일 세 가지 일을 잘하고 나가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면서 집안일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지 진정으로 자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한 관(關)을 잘 넘기지 못하니 다음번에 또 왔습니다. 가정 환경이 갑자기 변해 아들이 매일 퇴근해 집에 들어오면 화를 냈습니다. 식탁을 깨끗이 닦지 않았네, 반찬이 짜네 싱겁네, 또 반찬 색깔이 보기에 안 좋아 식욕이 없네, 밥이 되네 지네, 그릇을 깨끗이 안 씻었네 하며 트집을 잡았고 심지어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얼굴을 붉히며 웃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몇 년을 밥을 해줘서 너도 먹었는데 왜 갑자기 맛이 없다는 거냐?’ 아들은 또 말했습니다. “엄마는 온종일 법공부 아니면 연공만 하고 아예 집을 집으로 여기지도 않고 밤낮으로 바쁘기만 해.”

아들의 그런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속으로 ‘재랑 똑같아지지 말자, 난 연공인이야’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참지 못하고 변명했고 나중에 또 후회하며 자신을 연공인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저는 원망이 생겼고 이들이 저를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널 키웠고 지금 집안일도 내가 다 하

는데 넌 만족할 줄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대법을 배웠기에 건강한 몸이 있어 너희에게 밥해주고 설거지하며 이 집안을 위해 고생하는 거야. 매일 퇴근하면 밥과 반찬을 다 해놓는데 내가 뭘 잘 못했단 말이냐?’

안으로 찾았지만 저는 일의 표면만 찾았지 뿌리를 캐지 못했고, 참지 못하고 사람의 일면으로 뛰어가 옳고 그름을 가늠했으며 자신이 수련인임을 잊었습니다. 며느리도 제게 말했습니다. “그이가 왜 자꾸 어머님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잘하는데 지금은 어머님의 흠만 잡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서 그래. 개가 날 제고하게 도와주는 거야.”

며느리는 제가 대법 배우는 것을 아주 지지했고 대법서적도 본적이 있습니다. 때로 아들이 화를 내면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 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화내는 것은 어머니에게 가장 큰 불효예요.” 때로 아들도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큰소리치면 저녁에 아내가 저한테 ‘설교’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 내가 잘하지 못해서 그래. 사실 너도 내가 제고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해도 여전히 근원을 찾지 못했고 거짓 자아[假我]에 이끌려 최소한의 참음조차 해내지 못했으니 선(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 ‘불공평’한 마음이 때때로 튀어나오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행동은 모두 내 마음을 겨냥해 온 게 아닌가? 왜 아직도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지? 사람의 관념을 내려놓고 법으로 자신을 가늠해야 해.’

저는 오늘 그것을 붙잡고 안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보니 제

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는 마음이 있었고 게다가 아주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늘 남의 칭찬을 좋아하고, 잘난 체하며,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려 했으며, 게다가 허영심도 아주 강한 등 많은 집착심(질투심, 쟁투심, 환희심, 원망심, 과시심, 명예욕,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마음, 늘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남의 의견을 듣지 않으며 늘 남의 단점만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본을 말하자면 여전히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사(私)를 위하고 나(我)를 위하며, 대법의 각도에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완전히 사람의 관념으로 표면적인 옳고 그름을 가늠했기에, 수련의 길에서 제고가 아주 느렸고 진정으로 사람에서 벗어나 신(神)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며 사부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환골탈태하여 근본적으로 자신의 집착을 제거하겠습니다.

사실 이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 마음에도 근원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의류 공장에 다닐 때 저도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해 일을 비교적 잘해서 공장의 사부들에게도 자주 칭찬을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옷 본을 뜨는 것은 모두 제가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자 제 마음은 우쭐해졌고 제가 남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대법 수련에 들어와서도 이런 관념이 나타나 늘 저를 중심으로 하고 좋은 말만 듣기 좋아했습니다. 법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당신은 좋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하고, 당신은 그 듣기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원문 아님). 저는 자신을 새로이 인식하고 대법으로 자신을 바로잡으며 착실하게 자신의 수련을 대해 사부님께 심려를 덜 끼쳐 드리고 위안을 더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 3. 안으로 찾고 세 가지 일을 하며 생사관을 넘기다

설날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나가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다가 조심하지 않아 발을 헛디뎠어 넘어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괜찮았는데 속으로 ‘내가 북쪽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나? 사부님께서 일깨워주시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방향을 바꿔 두 거리를 걸으며 인연 있는 몇 사람에게 진상을 알렸고 그들은 모두 기쁘게 삼퇴(三退, 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이미 4시가 넘어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밥을 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씻은 뒤 제 방으로 돌아와 법공부를 하려 했습니다. 이때 허리가 무척 아파서 정상적으로 책을 보고 법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법을 듣고 발정념하고 안으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잘 수 없었고 아예 눕지도 못했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찌르듯이 아파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당시 저는 사부님을 생각했고 사부님께 제자를 가지(加持)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나는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제자다. 다른 배치는 다 필요 없고, 잘하지 못한 건 내가 법(法) 중에서 바로잡을 테니 너희들 구세력이 제 몸을 교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내 모든 것은 대법이 만들어 주신 것이니 오직 대법 사부님만이 관할하신다.’

새벽이 되어 알람이 울렸고 일어나 연공해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또 쓰러졌습니다. 연속 몇 번이나 아파서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파서 죽더라도 난 일어나 연공할 거야.’ 결국 저는 온몸의 힘을 다



해 침대 모서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일어섰는데 다리, 팔, 온몸이 아파서 떨렸지만 그래도 참고 연공을 마쳤습니다. 며칠을 연속으로 저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버텨왔고, 낮에는 여전히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집안일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두 다리로 걷기가 무거웠으며 계단을 오를 때는 다리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두 종아리가 퉁퉁 부어 딱딱해져서 저녁에 가부좌할 때는 끈으로 다리를 묶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제 업력을 없애도록 도와주시는 걸 압니다. 저는 반드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위해 너무 많이 감당하셨는데 저는 반드시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허리가 밤이면 더 심하게 아파서 몸을 뒤집기만 해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가족과 수련생은 모두 몰랐습니다. 나중에 수련생이 제 허리가 좀 굽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며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안으로 찾고 발정념을 많이 하고 법공부를 많이 하며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했는데, 제 허리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제자에 대한 사부님의 거대한 감당과 무량한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수련생이 제게 권했습니다. “집안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매달 2천 위안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방을 얻어 사세요. 그러면 조용하지 않겠어요?” 저는 듣고 좀 속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심성을 제고할 기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사실 수련생도 저를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마 나의 수련 환경일 거야. 내가 갈등을 피하면 안 돼. 갈등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닦겠어? 모두가 너도 좋고 나도 좋다면 그건 수련이 아니라 속인의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거지.’

제가 그 집착심들을 찾아내 자아를 내려놓고 타인의 각도에 서서 생각하며, 완전히 남을 위해 생각하자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사실 가정 환경은 모두 제가 수련하는 것을 돕는 것이니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저는 아들에 대한 정이 무거워 그가 진상을 듣기 싫어할 때면 늘 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안으로 찾아보니 모두 제 마음이 조성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가 진상을 듣지 않는데, 자신이 그에게 집착해서 뭘 하겠습니까? 사람은 각자 운명이 있는 법입니다. 제가 명(名)·리(利)·정(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그들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밖에서 운전하며 온 식구의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바쁘니 사실 그도 고생스럽습니다.

제가 마음을 내려놓자 아들도 변했습니다. 부부는 제게 아주 효도하는데 쉬기만 하면 밥하고 설거지를 도와주며 지금은 대부분 며느리가 장을 봐옵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엄마, 제가 집에 있을 땐 제가 밥할 테니 엄마는 가서 법공부 하세요.” 발정냄 시간이 되면 온 식구가 제게 알려주고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식구들이 제가 발정냄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먹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싱글벙글 웃으며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있는데 대법이 저를 변화시켰고 이 집안을 변화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주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어떤 방으로 들어갔는데 큰 침대가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 붉은 관이 놓여 있고 침대에 한 노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관을 침대 위에 뒀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 방이에요. 내가 죽으면 여기 살 거예요.”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수련하는 사람은 이 길을 가지 않아요.”

깨어난 후 좀 무서웠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부님의 가지(加持)가 없었다면, 내가 생사의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면 아마 이번에 구세력이 독한 수를 써서 내 육신을 뺏어갔을 거야. 하지만 사부님께서 내가 넘어가도록 도와주셨어.’ 그 속에서 저는 정법 수련의 엄숙함을 인식했습니다. 수련의 각 층차에는 모두 기준이 있어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래로 떨어질 것이고, 속인의 명·리·정에 이끌려 수련을 포기하거나 어찌면 반대편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련생 여러분, 저를 반면교사로 삼으세요. 잘하지 못하면 사부님의 자비롭고 고생스런 제도에 죄송하고, 천국세계 중생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에 죄송하며, 더욱이 자신에게 죄송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자신의 서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제자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시려 하지만 자격 미달인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용맹정진하여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갑시다.

(명혜망 제22회 중국 대법법회 원고)

## 졸업 후 귀국해 직장에 매몰됐다가 팬데믹 후 깨닫고 분발해 뒤쫓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2년 전부터 수련 체험담을 쓰려고 했지만 매번 용기를 낼 때마다 명혜망(明慧網)에 실린 수련생들의 글에 비해 자신이 너무나 정진하지 못하고 게으른 것을 보고, 자신이 부끄러워차일피일 미루며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올해 명혜편집부의 ‘제22회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 통지’를 다시 보니 갑자기 긴박감이 들어 반드시 제 수련의 답안지를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안지가 어떻든 제 수련 과정의 기록이며 자신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1998년 여름, 어머니를 통해 대법을 얻었습니다. 당시에는 젊었고 법공부가 깊지 않아 대법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제 꿈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1999년 7월 법난(法難)이 시작되자 중공 악당의 엄청난 거짓말에 혐오감이 들어 그때부터 TV도 신문도 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처음 부모님을 떠나 혼자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법공부도 하고 기회가 되면 현지 수련생들과 함께 법을 실증하고 진상을 알렸지만, 나중에 학업과 생활의 압력에 시달리면서 법공부가 점점 줄었고, 법의 힘이 없으니 속인의 칠정육욕(七情六慾)에 쉽게 빠져 법의 요구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대법이 있었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전법륜(轉法輪)’을 다 읽고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

지 법리를 깨달은 후로는 약을 한 알도 먹지 않았지만 정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부님께서는 줄곧 저를 보살펴 주셔서 병업 고비를 겪을 때 사부님 설법을 들으면 금방 좋아졌는데, 좋아지면 또 듣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귀국해 직장 생활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부침을 겪느라 수련은 뒷전이었습니다.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와 생활이 안정을 찾았고 우연한 기회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수련생이셔서 제가 가정의 작은 자료점 일을 맡아 매주 두 분 어머니께 ‘명혜주간’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법 노정이 추진됨에 따라 천지행(天地行) 포럼에 접속해 CD 굽는 법을 배웠고, 퇴근 후 아이가 잠들면 선원(神韻), ‘9평(9평 공산당)’, ‘우리는 미래에 알린다’, 그리고 인터넷 봉쇄 돌파 소프트웨어 CD를 구워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나가서 진상을 알릴 때 인연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서적, 호신부(護身符), 진상 지폐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정진하지 못했습니다.(지금 보니 모두 일하는 마음이었고 무엇이 수련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아이에게 ‘논어(論語)’를 외워 들려줬습니다. 임신 몇 개월 때 집에서 가져온 천도복숭아에서 우담바라가 활짝 핀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감격한 저는 퇴근 후 가족 모두에게 보여주며 3천 년 만에 인간 세상에 핀다는 이 불국(佛國)의 성스러운 꽃을 모두가 인연이 닿아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정수리에 태반 같은 큰 푸른색 무늬가 있었

는데 어머니는 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가 대법제자 집에 온 것은 법을 얻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아이 몸이 좋지 않을 때면 가족들의 압력을 견디며 아이에게 사부님 설법 녹음을 들려줬고, 10여 년간 아이는 그렇게 지내며 병원 한번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수련 상태가 계속 정진하지 못해 딸이 더 일찍 수련에 들어오지 못하게 영향을 줍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국내의 기형적인 교육 제도 속에서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점수에 대한 집착과 딸에 대한 정(情)으로 한때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딸은 원래의 밝은 모습에서 극도로 열등감이 심하고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가족들이 나란 수련인을 어떻게 보겠어! 이건 대법에 먹칠하는 게 아닌가? 딸이 1등을 하고 장차 좋은 대학에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얻은들 그게 뭐란 말인가? 이건 속인이 추구하고 동경하는 삶이 아닌가?’

정신을 차린 후 제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잘못했는지 알았습니다. 딸은 그 오랜 시간 제가 주는 압력을 묵묵히 견디며 한 번도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사과하자 딸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전에 하신 말씀 다 잊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수련의 길에서 넘어졌으니 얼른 일어나 앞으로 쫓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딸을 이끌고 함께 수련의 길을 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2023년 1월, 저는 발정님의 중요성과 엄숙함을 중시하기 시작

했고 매일 법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발정념 상태가 좋지 않아 얼마간 하다 말다 했는데, 이번에는 밤 12시 발정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돌파해 발정념을 하고 나서 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졸렸지만 사악의 교란임을 알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잠들면 깨어나 시간을 연장해 계속 발정념을 했고, 잠을 적게 자면 낮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자 서서히 졸리지 않게 되어 4번의 정각 발정념을 빠짐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있어 제때 못 할 때, 특히 점심시간에 동료가 찾아오면 당일 시간을 내어 보충했습니다. 손이 쓰러지거나 정신이 흐릿하면 분명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니 안으로 찾아 그것을 닦아버리면 상황이 호전되었습니다.

사부님의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가 발표되면서 정법 노정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느꼈습니다. 급선무는 법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련할 줄 몰라 법을 한 강의 읽고 나면 머릿속이 하얗서 뭘 배웠는지 생각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명혜망에서 관련 수련생들의 글을 검색해 분류별로 폴더에 넣었습니다. 발정념 잘하는 법, 법공부 잘하는 법, 안으로 찾는 법 등이었는데 특히 안으로 찾아 심성을 닦는 부분에서 닦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당문화 독소를 제거하는 ‘9평’, ‘당문화 해체’,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 ‘악마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한글판: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의 오디오와 문서를 다운로드해 출퇴근길에 오디오를 듣고, 집에 와서는 전자책이나 직접 만든 종이책을 봤습니다. 명혜라디오의 각종 오디오도 다운로드해 출퇴근길에 들었습니다.

수련생들의 법 암기, 법 필사 경험은 제게 큰 감동을 줬고 저도 법 암기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법 암기를 시작했는데 이는 훗날 어머니 수련생이 난을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 암기 덕분에 서서히 우리 세 식구는 저녁에 함께 법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역할이 컸는데, 우리가 바쁘거나 딸이 숙제를 늦게 마쳐도 딸은 단 몇 쪽이라도 반드시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딸은 “그것도 법공부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되고 매일 배워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보다 못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수련에 늦게 입문했지만 우리 각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했을 때, 저는 법리로 제 인식을 공유하며 대법의 표준, 심성 표준에 따라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잘하지 못할 때 그들이 도리어 법리로 제 부족함을 지적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낭비하며 수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몹시 후회되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생겼고, 남편 앞에서 한숨을 쉬다가 딸과 이야기하던 중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후에 하교한 딸이 아빠와 이 일을 이야기했고, 제가 퇴근해 돌아오자 두 사람이 동시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집착이 너무 심해요!”

처음에는 변명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는 사부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 저를 일깨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소극적이지 말고 시간을 다그쳐 얼른 수련하자!’ 사부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괜찮다! 빨리 일어나라!”(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 이것이 바로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이십니다! 못난 제자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 늦여름, 집에 갑작스러운 변고가 생겼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집에서 넘어지셨는데 어머니 수련생이 부축하려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고, 허리를 빼앗겼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바르지 못한 일념이 이후 어머니에게 거대한 난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입원하셨고 어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번갈아 가며 입원하신 아버지와 집에 계신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당시 딸은 타지에서 몇 달간 단체 훈련을 받고 있어 처음으로 집을 떠난 상태라 매주 일요일 우리가 차를 몰고 가서 만나 각자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위중했고 오랜 기저 질환으로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머니는 처음에는 발정 넘하고 안으로 찾으며 일주일 후 보행 보조기를 밀고 침대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여쭙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수련한 노(老) 대법제자시잖아요. 아버지를 부축할 때 9자 진언(九字眞言)을 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허리가 갑자기 아플 때 자신이 대법제자이고 우리에게 사부님이 계시며, 누락이 있어도 법에서 바로잡을 것이니 사악이 빈틈을 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못 하셨나요?”

어머니는 “그때는 급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대가족 중에서 가장 수련을 잘한다고 여겨졌고 어디가 안 좋은지 전혀 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정이 너무 깊었습니다.

며칠 후, 딸을 보러 가느라 저녁에 어머니 식사를 제때 챙겨드리지 못하고 다음 날 가보니 어머니는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져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매우 조급해하며 어머니께 누워 있지 말고 많이 연공하시라고, 벽을 짚고 조금씩이라도 연공해야지 누워 있는 건 구세력의 배치를 인정하고 구세력의 길을 걷는 것이니 사부님 말씀에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통증을 너무 두려워하셨고 그런 아픔을 전혀 참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홍음’ 중 ‘마음고생’을 써서 어머니 침대 머리맡 옷장 문에 붙여 눈만 뜨면 보이게 했습니다. 또 명혜망 문장 모음집 ‘병업 가상을 벗어나다’를 출력해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보다 연배가 높은 시어머니는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후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혼자 2주간 누워 계시다 고비를 넘긴 일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속으로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내게는 사부님이 계셔’라고 하셨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고 나쁨은 일념에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신 지 한 달이 넘도록 어머니는 아버지의 상태를 먼저 묻지 않으셨고 늘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문득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여쭙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원망한 적 있으세요?” 제가 캐묻자 어머니는 수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 인연 관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전생에 아버지께 좋지 않은 일을 했을 수도 있고, 현세에 마침 갚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겪은 고생과 고통, 그것도 어머니가 빚진 거잖아요. 게다가 여든이 넘으셨는데 속인도 이 나이면 많은 일을 담담하게 보는데 하물며 수련인이시잖아요….”

어머니의 집착(고생을 두려워하는 마음, 원망심, 의존심)을 구세력이 틈타 병업을 계속 가중했고, 그 후 한동안 어머니는 심한 혈뇨 증상을 보였으며, 허리가 안 아프면 배가 아프고 하루에도 몇 번씩 혈뇨를 보셨습니다. 나중에는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혈뇨까지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사람이 몰라보게 야위었습니다. 사악이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어머니를 박해했고 저는 계속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못하셨고, 너무 아파서 나중에는 말할 기운조차 없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수련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못 참으세요? 구세력이 박해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강해지지 못하고 정념으로 자신의 난을 대하지 못하세요? 대법제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세요?”

어머니는 “가라, 넌 필요 없고 난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너무 억울했고 매일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정념을 내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법은 모두 적어서 출처를 표기해 어머니 옷장 문에 붙여놓고 매일 읽고 외우시게 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가서 아침밥을 해드리고 퇴근하면 곧장 달려가 저녁을 해드렸으며 주말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낸 건 제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진정으로 안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어머니의 아침을 챙겨드리러 나갔는데 초겨울 이른 아침, 아직 날이 밝지 않아 단지 내 청소부만 비질을 하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 아침 발정념을 하고 다시 잠을 잤을 텐데 벌써 몇 달째 주말도 없이 아버지 병문안(상태가

계속 불안정), 어머니 간병(세 달째 점점 심각), 딸 면회(딸도 여러 번 심성 고비를 겪음)를 다니니 이게 ‘백 가지 고생 한꺼번에 내리거니’(홍음-마음고생)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고비를 겪고 있는 걸까요? 저도 고생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억울하다고 느낀 건 제가 폭 쉬지 못하고 계속 세 사람 일에 매달렸기 때문일까요?

갑자기 머릿속에 사부님의 경문 ‘경지(境界)’가 서서히 떠올랐고 순식간에 제 마음이 환해지며 고통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어제 화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부님께서도 제자 하나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저도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같이 난을 이겨낼 거예요.”

한번은 어머니가 울면서 아버지께 대한 원망을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답답해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 때문에 우실 게 아니라 어머니 세계의 중생을 위해 우셔야죠! 그들이 어머니가 잘 수련해 구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사부님께 여쭙었습니다. ‘사부님,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서히 알게 된 것은 제 정(情)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이라 그들 셋에게 번갈아 상황이 발생해 제가 줄곧 그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마음을 내려놓자 어머니는 사부님께서 관할하시고, 아버지와 딸도 사부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점차 어머니는 혼자 아침밥을 해 드실 수 있게 됐지만 법공부만 하고 연공은 하지 않아 몇 번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 나도 계속 연공을 안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저도 연공하겠다고, 대법은 성명쌍수(性命雙修) 공법이라 수(修)만 하고 연(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체(本體)도 전환해야 하는데 연공하지 않는 건 사부님 말씀은 안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맞는다며 연공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기저질환과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몇 달 계시다가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어머니를 걱정하셨는데 아버지가 떠나신 후 보니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의존이 너무 강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TV를 보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으면 늘 아버지만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전법륜’의 말씀을 외워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생명은 元神(웬선)이기 때문에, 당신의 元神(웬선)을 낳은 그 어머니만이 당신의 진정한 어머니다. 당신은 육도윤회 중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인류였든, 인류가 아니었든 다 헤아릴 수 없다. 생생세세(生生世世)에 당신은 자녀가 얼마인지도 헤아릴 수 없다. 어느 누가 당신의 어머니고, 어느 누가 당신의 자녀인지, 두 눈을 감기만 하면 누구도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며, 당신이 진 업(業)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 사람은 미혹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그의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여 어떠어떠하게 좋았는데 그가 죽었다 하고, 그의 어머니가 어떠어떠하게 좋았는데 역시 죽었다고 그는 그지없이 비통해하는데, 그야말로 후반생에 마치 그것을 따라가려는 듯하다. 당신은 생각해 보지 않는데, 이것은 당신을 시달리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형식으로 당신을 편안히 지내지 못하게 한다.”

나중에 다시 어머니를 설득하며 아버지는 어머니가 수련을 잘

해 제도해주길 기다리고 계실 테니 우리 수련을 잘하자고 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으셨고 상태가 하루하루 좋아지셨습니다.

이 1년여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저도 어떻게 착실히 수련하는지 진정으로 알게 되어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지만, 어머니와 겪은 이 기간을 적어봅니다. 겉보기에는 제가 어머니를 돌본 것 같지만 사실 어머니도 저를 성취시키고 제 제고를 도와주셨습니다. 제 조급한 마음, 휴대폰을 좋아하는 마음(어머니가 TV를 좋아하시는 걸 보고 안으로 찾아보니 제게도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집착(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입맛에 맞춰 밥을 하니 뭘 먹든 상관없고 배만 부르면 됩니다), 색욕심(새 옷 사기를 좋아함), 안일을 추구하는 마음(힘들고 고생스러운 걸 두려워함)을 닦아버리게 했습니다. 주변 환경이 우연히 존재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두 제 수련 제고를 돕기 위해 나타나고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해외 수련생이 쓴 글 ‘천목으로 본 것, 마지막 시각이 곧 닥쳐온다’의 한 단락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최근 많은 수련생이 수련과 생활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이유를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빨리 정법 노정을 따라올 수 있게 하시고, 빨리 층차를 제고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단계를 잘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더 노력하고 더 확고해야 합니다.” 이 글을 보고 저는 제자의 제고를 위해 시시각각 제자를 보살피 주시는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줄곧 독수(獨修)를 해왔고 중국에서 대가족 내 세 분의

친인척 수련생 외에는 다른 수련생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법공부 팀에 참가하고 싶어 했고 단체 법공부 환경이 있는 수련생들을 부러워했으며, 그런 환경이 제고가 빠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 수련생들도 각자 환경의 제약으로 가정 법공부 팀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줄곧 명혜망을 통해 매일 수련생들의 교류문장을 다운로드했는데, 이것이 사부님께서 제게 배치해주신 수련의 길이며 명혜망 수련 마당이 바로 저의 수련 대학(大學) 법공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께도 제가 매일 글을 저장해 보여드릴 테니, 밖에 나가 교류할 기회가 없으셔도 이 글들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글은 그들이 스스로 바르게 깨달은 법리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 말씀도 문제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에게만 단체 법공부 환경이 없어 자신의 많은 부족함을 스스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교류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대법제자의 수련 체험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수련생이 자신의 수련 체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글들은 명혜편집부 수련생들이 자세히 원고를 읽고 수정하고 검토해 올린 것이라 모두 매우 좋은 교류문장입니다. 어떤 수련생이 겪은 일이 우리와 매우 유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저도 체험했는데, 수련생의 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대법 속에서 수련해 낸 수련생의 정념정행(正念正行)에 감동했고 그 호연지기(浩然之氣)는 다른

공간의 사악도 서늘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중에 시어머니 수련생도 매일 시간을 내어 글을 낭독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딸도 진지하게 법공부를 했습니다. 비록 학교 성적은 아주 좋지 않았지만 품행은 선생님이 인정하는 우수한 아이였습니다. 타지에서 교육받는 동안 여러 번 심성 고비를 겪었는데, 제가 대법의 각도에서 딸이 겪은 문제를 분석해 주니 금방 자신의 문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사부님 설법 녹음을 가져다 달라고 먼저 요구했고 안전에 유의하는 상황에서 매일 사부님 설법을 들을 수 있었으며, 전자책으로 각지 설법도 봤습니다.

휴대폰을 쓸 수 없어 물건 살 때 현금을 써야 했는데, 그 기간 딸은 매점 아주머니와 사이가 좋아져 늘 큰 단위의 돈으로 물건을 사고 아주머니가 거슬러 주는 1위안짜리 지폐를 모아뒀다가, 저와 만날 때 줬는데 100위안 넘게 모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할 줄 몰라 감동했습니다. 이 지폐들을 모두 진상 지폐로 만들어 필요한 두 분 수련생에게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딸의 공덕이 무량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를 위해 마음 졸이시는 사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명혜망에서 묵묵히 일하며 헌신하는 수련생들, 그리고 전 세계 대법제자들의 교류와 공유에 감사드립니다. 줄곧 저와 함께 수련의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바로잡고 끊임없이 노력해 뒤쫓아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의지의 소모에서 마(魔)를 제거하기까지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련한 지 30년 가까이 된 대법제자입니다. 정법은 이미 막바지에 가까워졌고, 우리의 수련도 어느새 어떤 특수한 단계에 진입하여, 마치 시험이 갈수록 전면적이고 혹독해지는 듯하며, 대법 또한 마지막 선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병목 현상 같은 수련 상태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리저리 뒤척이며 돌파하기 어렵고, 의지가 소모되고 있으며, 아무리 해도 활력을 차릴 수 없고 진상 알리는 일도 더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련인에게 있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문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알게 모르게 꺾이고 침울해지며, 자신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일말의 서광도 보이지 않는 듯하고, 외부의 변화에 대해 좋은 나쁜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단지 한 가지 생각, ‘나는 대법제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유일한 정념조차 스스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의 요구는 매우 높고 사부님께서 진정한 대법제자에 대해 요구하시는 기준이 매우 높은데, 제가 도달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중국법회를 빌려, 이런 시련 속에서의 저의 수련을 이야기하고, 사부님께 보고드리며 수련생들과 교류하여, 난을 벗어나 함께 제고하고자 합니다!

## 남의 부족함을 보는 데서 안으로 찾기를 배우고 질투심을 닦아버리다

장기간의 억울한 옥살이 박해가 끝난 후에, 저는 자신을 잘 추스르고 곧바로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기간에 한 수련생을 만났는데, 몇 번 접촉한 후 그녀는 저와 함께 세 가지 바른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기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일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봤는데, 마치 수련을 갓 시작한 듯하고, 대법제자 같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남을 논하기 좋아하며, 제가 듣기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녀는 방식을 바꿔 제가 남의 부족함을 말하도록 유도한 뒤,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심의 기쁨을 억누르곤 했습니다. 진상 활동할 때도 잊지 않고 속인들이 하는 잡담을 몇 마디 했으며, 제가 바로 제지하면 무안해하고는 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때로는 그녀를 따돌리고 다른 일을 하게 하면, 그녀는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록 장기간 박해를 받았지만 겉모습은 여전히 젊어 보였고 심지어 동년배 수련인보다 더 젊어 보였으며, 걸음걸이가 가볍고 활기찼는데 그녀는 그것을 따라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그녀도 갖고 싶어 했고, 게다가 저를 넘어서려 했습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저와 겨루려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문득 그것이 질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저와 비교할수록 저는 더욱 그녀를 얹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그녀의 생김새까지 트집 잡으며, 선량하고 잘생긴 일반인보다 못하고 온종일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일종의 흥계와 사악한 빛이 배어 나온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기 저의 상태는 비교적 좋았고, 마음을 세 가지 바른 일에 쫓기에 심성이 비교적 순수하고 단순해서 다른 수련생의 부족함을 말하고 나면 그만이었지,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제가 ‘지적’한 후 발정념 할 때 상대방이 억울함을 억누르며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눈을 뜨고 보지 않았습니다. 발정념이 끝난 후 그녀가 평소처럼 ‘거짓 웃음’을 짓는 것만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싫어하고 심지어 때로는 화가 나서 그녀를 쫓아내려고 해도 그녀는 가지 않고 버티며 함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일종의 무시하는 마음을 품은 채 그녀가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한 차례 세 가지 바른 일을 마친 후 저에게 연달아 몇 번의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비록 다 헤쳐 나왔지만 매우 억울했고 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심전력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어째서 이런 영문 모를 어려움이 있는 걸까?’ 반면 그녀는 단란한 가정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그녀는 느릿느릿, 심지어 고소해하며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아직 자신에게서 찾지 못했지요?” 그녀는 아는 듯했지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 때문에 제가 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 빗대어 말하는 뜻은 저를 더욱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 수련생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뭐 하는 사람이니? 구세력과 한패인가?’

한 수련생이 “사실 어떤 수련생은 구세력이 배치해 들어온 것이며 사부님의 대법제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욱더 그녀가 구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속인 같은 모습, 오직 자신이 잘되기만을 바라는 것, 정법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명확히 자신이 잘 되고 제고하기 위함이며 그 과정에서 날 이용할 뿐이었구나.’ ‘이것은 그 구세력의 사고방식과 같지 않은가? 이런 사람은 배척해야 할 뿐만 아니라 멀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가능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 제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이는 제가 그녀를 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느낀 저의 환경은 전체적인 여론이 마치 모두 그녀 편인 것 같았고, 도리어 제가 공격과 부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저의 트집 속에서 수련해 올라가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온통 부정적인 것에 휩싸여 그 수련생의 존재에 대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찾는 법은 다 알지만 어떻게 찾는가? 무엇을 찾는가?’ 저는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수련생이 지적하기를, 평온하지 못한 마음도 질투심이라고 했습니다. 질투심에 대해 저는 부정했고 게다가 그런 마음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며, 사람이 어떻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질투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제 수련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법공부를 해도 법을 얻지 못했으며, 법이 보이지 않았고 갈수록 부정적인 것에 심각하게 휩싸여 있다가 다시 박해가 나타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자신의 수련에 대해 재인식하고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며, 더는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자주 단체 법공부에 참가하며 어려움 속에 있는 수련생을 돕는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되도록 사부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부정적인 것들이 여전히 제 공간장에 맴돌았고, 저는 여전히 진정으로 초탈해 나오지 못했으며, 여전히 기운을 차릴 수 없었고 정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운을 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질투심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닐까요? 그것이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서서히 저의 모든 마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질투심이 있고 또 아주 심하지만, 그녀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바르게 이용하여 자신을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지적 속에서 자신을 찾으며 인내하고 묵묵히 위로 닦아 올라갔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를 흠치다’에서 말한 것처럼 흠친 것은 다 검은 기였고 ‘기를 담는 큰 자루[大氣包]’가 되었으면서도 자신에게 공(功)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억울해하며 늘 남이 좋지 않고 남이 수련인 같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신이야말로 바보였고 남만 수련시키고 자신은 수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질투심은 본래 남도 해치고 자신도 해치는 것이나, 제 경우는 저 자신만 상처 입히고 남은 성취시켜 줬습니다.

동시에 이런 불안정하고 남을 얹잡아 보는 마음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불러왔습니다. 왜 상대방의 모습을 반대로 자신을 비취 보는 데 쓰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난을 타파하는 법이 아닙니까? 또 자신의 문제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이 아닙니까? 사부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여태껏 문제의 소재를 찾지 못했을까요? 사실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덮어 감추고 싶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으며,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덮어 감추려 했을까요? 수련하기 싫고 제고하기 싫어서였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자신이 수련을 잘했다고 여기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이름을 추구하고 큰 풍파 속에서 확고하게 걸어온 ‘위대한’ 제자의 형상을 고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 강렬한 환희심, 과시심이 남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이니 바로 자신이 불러온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자신을 비춰보겠습니다. 제가 상대방이 뒤에서 남들을 논하기 좋아한다고 보았을 때, 그럼 저는 정말 담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반인 차원에 서서 그것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를 건드렸을 때 저도 논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상대방에게 유도되어 담론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겠지요. 저는 법의 기점에 서서 수련인은 입을 닦아야 하고 남에게 선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이런 일을 대하지 않았고, 동시에 굳건한 의지로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으며, 중국인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좋지 않은 특성을 억제하지 못했으므로,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었고 억제하는 작용을 하지 못해 상대방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녀가 속인식 잡담을 한다고 지적했는데, 그녀는 입으로 떠들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떠들었으며, ‘내가 당신보다 높으니 당신을 지적하는 거야’라며 자신이 진상 활동을 순정하게 한다고 과시했습니다. 그녀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꼬투리 잡아 따돌렸는데, 저 또한 사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수양 면에서 아주 좋지 않은 이상 말입

니다. 좋은 것은 뭐든 보면 갖고 싶어 하는데, 누가 좋은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저와 비교하는데, 저는 비록 남과 비교하지 않지만, 그것은 제가 오만하여 비교할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반감을 품었을까요? 남이 자신보다 앞서갈까 봐? 남의 좋은 점을 보면 따라 배우는 이것은 바로 자신을 제고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자신을 안으로 법에 대조해 봄으로써 저는 보았습니다. 제게 질투심뿐만 아니라 오만함(심하면 자심생마 되어 자신이 대단하고 남들은 다 자기만 못하다고 여김)도 있었고, 밖을 보는 와중에 모든 것을 타도하며 당문화(공산당 문화) 중에서 수련을 거의 망칠 뻔했습니다. 갈등 속에서 자신의 제고는커녕 오히려 도피하고 덮어 감추며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 자신을 잘 수련할 많은 기회를 잃고 하마터면 자신을 망칠 뻔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얕잡아 보는 것도 구세력의 한 가지 표현이 아닙니까? 어쩌면 저도 구세력이 얕잡아 보는 대법제자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얕잡아 봄 자체가 남에게는 일종의 상처입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상대방이 기뻐한 것은, 바로 제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설명하는데 저는 도리어 제가 상처받은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제가 얕잡아 보는 마음이 없었다면 수련생은 아마 다른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질투는 바로 마입니다. 정체(整體) 수련 환경 속에서 그것은 또한 자주 출몰하며 수련 환경을 교란하고, 수련생을 고립된 처지에 빠뜨리는 날카로운 무기이며, 수련생 사이에 정체 형성을 이간질하고 정법과 중생구도를 파괴합니다. 구세력이 이용하는 가장 유용한 마법의 지팡이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철저

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미 그것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를 위함에서 남을 위함에 이르고, 새벽 연공을 할 수 있게 되다

의지의 소모 중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 장기간 새벽 연공을 꾸준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1999년 이전에 저는 법 공부와 연공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비교적 정진했습니다. 그때는 야외에서 연공했는데, 흑한이나 흑서,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쳤어도 연공장에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이었고 몸에도 별다른 병이 없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저는 해이해졌습니다. 한동안은 매일 새벽 연공을 따라잡으려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새벽 연공을 하고 싶지 않게 됐고, 연공을 하더라도 조금도 하지 않으면 몸이 너무 괴로워 마지 못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식(主意識)은 자신이 심하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이 현상을 바꿀 힘이 없어 속수무책이었고 본체가 눈에 띄게 노화되는 것을 뻔히 지켜봤습니다.

한번은 고속열차를 탔을 때 60대 여성과 함께 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제게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 제가 나이를 말하자 그는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뻔히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 보이네요!” 저는 그가 제가 젊다고 감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개를 돌려 옆에 있던 60대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보다 훨씬 늙었네요, 그녀는 정말 60세로 안 보여요!” 그러고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서 그 60세 아주머니 하고만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는지요! 한번도 저를 그렇게 나이 들게 본 사람이 없었지만 수련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극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이제부터 연공은 따라잡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가부좌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부좌 시간이 길어질수록 멈추고 난 뒤에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시큰거리고 뻣뻣해서 마치 일반인이 체조하듯 몸을 풀어줘야만 풀렸습니다. 연공을 해야만 기본적인 매일의 수련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면 저는 연공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은 그렇게 연공했지만 결심했다가 이틀이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집착심을 제거하는 셈 치고 목적을 달성해보자! 이것은 안일한 마음과 관계있으니 안일함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연공을 견지하자.’ 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온몸이 속에서부터 겉까지 너무 괴로워 눕지 않고는 진정이 안 되어 여전히 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2년을 반복하며 계속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정해 일반인이 말하는 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보자.’ 그래서 일찍 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찍 잤는데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났고 역시 교란을 타파하지 못했습니다.

‘속인의 관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저는 속수무책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걸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저는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수련생과 많은 문제를 교류했는데, 그중 가장 공감했던 것은 현재까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신우주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여전히 위사위아(爲私爲我, 사사로움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속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법에 동화되어 사람에 대해 책임지고 사회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해내지 못했기에, 많은 항목의 효과가

기대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연공조차 해 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조차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만약 무슨 일이든 남을 위하는 각도에서 생각하고 자비로 중생을 선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근본적으로 구세력 배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구우주는 위사이고, 대법제자는 반드시 사부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선태후아(先他後我), 무사무아(無私無我)를 해내야만 구세력의 배치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실천 속에서 저는 ‘위타(爲他, 남을 위하는)’의 그 일념이 생기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하게 트이는 느낌 속에서 다음 날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3시에 깬고, 아무런 부정적인 생각도 없었으며 신체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5장 공법을 온전히 연마했습니다. 그날부터 가끔씩 부정적인 생각이 완고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새벽 연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단순히 안일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연공으로 본체를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며, 중생에 대하여 책임지는 표현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정법의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며, 정법의 각도에서 문제를 보아야만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맺음말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사부님께서 어느 체육관에서 연공하고 있는 수련생의 동작을 교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중 사부님께서 몸을 돌려 걸어가는 짧은 뒷모습이 저에게 만감이 교차하게 했고 눈가에 눈물이 고이게 했습니다. 저는 대부분 시간 사유가

업력의 교란을 받고, 심지어 다른 공간 생명의 교란을 받기까지 합니다. 특히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법리로 생각하려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안으로 찾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직 자신이 정법시기 대법제자라는 이 일념을 붙잡고 사부님께서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떠올리며 저의 정념을 확고히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천난만난이 있더라도 이 정법의 길을 잘 걷고 바르게 걸어, 중생을 이끌고 구우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매우 고되고 힘들고 험난하며 심지어 소진되는 느낌마저 들지만, 가장 큰 소원은 여전히 사존을 긴밀히 따르고 중생에 대해 책임지며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현 단계의 작은 수련 심득과 깨달음으로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제게는 아직 잘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바로잡아야 할 부족함이 많으며, 뒤쳐진 부분도 보충해야 합니다. 오직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만 만에 하나라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83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505만 0467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